

## 임진왜란사 인식의 문제점과 연구과제\*

조 원래\*\*

### 【국문초록】

기존의 임진왜란사 인식의 맹점 가운데, 가장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은 바로 그릇된 사료인식의 문제이다. 잘못된 사료인식이야 말로 충실한 임진왜란사 연구를 저해한 요인으로 작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임진왜란사 연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료들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한 중 일 3국에 공히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측의 1차사료들이 집적된 한국의 문헌들이다. 따라서 당대에 이루어진 조선측의 방대한 문집사료들과 다양한 전쟁일기류, 그리고 『선조실록』 중심의 관찬사료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새로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올바른 임진왜란사 인식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7년전쟁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를테면, 왜 조선측에선 정규군이 아닌 민병이 전투를 주도하였으며, 일본군은 해전에서 왜 조선수군에게 연전연패를 거듭하였는가? 그리고 정유년 일본군의 재침목표는 무엇이었으며, 당시의 전쟁양상은 1차 침략시와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이와 같은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전 초기에 조선측이 일방적인 패퇴 끝에 불과 18일만에 수도 서울을

\* 이 논문은 2012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책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AKSR 2012-P01).

\*\* 순천대학교 명예교수

내놓았던 원인은 훈련된 정규군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군이란 것 이 있었지만 이것은 평소에 훈련된 국군이란 뜻이 아니었다. 관군이란 전쟁이 발발한 후에야 관리가 농민들을 모집하여 지휘했던 군사들이었을 뿐이다. 즉 비관인 출신의 선비들이 지휘했던 민병(의병)이란 것과 성분상 차이가 전혀 없었던 것이 당시의 관군이었다. 16세기의 조선왕조는 훈련된 상비군을 보유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임진왜란을 당하였고, 따라서 민간에서 일어난 비정규군, 즉 의병이 전쟁을 수행했었다.

한편 섬나라 일본의 침략군은 바다를 건너 쳐들어오면서도 사전에 제대로 된 군선과 해상무기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모한 침략전쟁을 일으켰으니, 이 또한 임진왜란사 연구에서 깊이 재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와 함께 조선수군의 전통적인 해상전력이 일본군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막강했던 배경과 수군의 조직실체, 판옥선과 함재화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국의 해전실상들을 역사교과서에 기술하여 조선왕조가 전통적인 해상강국이었음을 새롭게 인식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정유재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로 인해 당시의 전쟁 피해가 얼마나 참혹하였는가에 대한 역사이해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정유란은 임진년의 제1차 전쟁에 대한 보복전쟁의 성격을 띤 재침전쟁이었고, 곡창지대인 전라도 전역을 초토화시킨 전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침의 전쟁실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명량해전이 오직 대첩으로만 이해되었을 뿐, 그 결과가 절저한 보복으로 이어져 최악의 전쟁피해를 불러왔다는 사실을 알 수 없게 하였다. 정유재란은 세계전쟁사상 유례가 없는 잔혹한 침략전쟁이었다는 사실, 히데요시의 작전명령에 따라 일본의 침략군이 조선의 부녀자와 노약자들까지 잔인하게 살륙하였을 뿐 아니라 닥치는 대로 귀를 베고, 코를 절단하는 만행들까지 자행된 구체적 사실들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 【주제어】

사료인식, 히데요시의 침략전쟁, 鼻切り(코베기),  
조선의 문집자료, 선조실록, 일본군의 해상전력부재, 免死帖

## 목 차

- |                       |                   |
|-----------------------|-------------------|
| 1. 머리말                | 3. 임진왜란사 연구의 선행과제 |
| 2. 임진왜란사 인식의 몇 가지 문제점 | 4. 맷음말            |

## 1. 머리말

임진왜란은 420년 전에 일본의 침략으로 조선과 명이 함께 싸웠던 7년전쟁이다. 전쟁이 끝난 지 까마득한 세월이 지난 지금, 삼국의 국제정세를 보면 임진왜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독도와 尖閣 열도(釣魚島)를 놓고 일본과 한국·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영토분쟁의 현실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임진왜란사 인식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임진왜란 이후에도 일본의 침략전쟁은 되풀이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임진왜란이 삼국간의 국제전쟁이었다는 현상적 사실에 앞서서, 대륙의 영토침탈을 목표로 전개된 일본의 조선침략전쟁이었다는 본질적인 문제부터 분명히 해야 할 때이다. 일본의 조선침략전쟁에 대하여<sup>1)</sup> 여전히 ‘朝鮮役’ 또는 ‘文祿·慶長の役’ 따위의 애매한 전쟁명칭을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역사인식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궁극적인 목표가 조선을 장악한 후에 명의 영토까지 정복하려 했던 까닭에 명군이 참전하였다는 사실도 재확

1) 일본에서도 北島萬次, 貫井正之 등은 임진왜란을 지칭하여 ‘豊臣秀吉の朝鮮侵略’, ‘豊臣政權の海外侵略’ 등으로 표현하였다.

인되어야 할 것이다.

임진왜란사를 어떻게 인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지난 1980~90년대부터 있어 왔다.<sup>2)</sup> 당시의 대체적인 논점은, 임진왜란의 결과가 조선측의 패배가 아니라 일본측의 패배였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 수군통제사 이순신이나 의병장의 활동을 이해함에 있어서 영웅사관으로 지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그리고 군사적 전쟁사적 안목에서 구체적인 임진왜란사의 진상이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들이었다.<sup>3)</sup> 이에 대해 일본의 침략전쟁이 실패로 끝난 것은 부인할 수 없겠다. 그렇다고 하여 조·명측에서 승리를 자처할 수는 없었던 전쟁이었고, 특히 조선측의 경우에 전쟁이 끝난 뒤 온나라가 폐허화하였다는 사실을 두고 보면, 모두가 패배한 전쟁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후 2,30년이 지난 현재 임진왜란사 연구는 많은 연구성과를 집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류를 이룬 연구는 의병의 전쟁사 분야였다. 따라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임진왜란사 연구방향도 기존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하겠다. 이제 한국의 임진왜란사 연구에 있어서 의병사 분야는 종결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면서, 앞으로의 연구방향과 관련하여 종래에 제기되지 않았던 임진왜란사 인식상의 몇가지 문제점부터 제기하려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어떤 역사에 대하여 그 역사적 사실을 잘못 이해한다거나 그릇된 역사인식이 나타나는 원인은 먼저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가 미진했거나, 아니면 연구가 되었을지라도 역사교육에 잘못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한국의 임진왜란사 인식의 문제점 또한 양면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임진왜란의 역사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사의

---

2) 이태진, 「임진왜란에 대한 이해의 몇가지 문제」, 『군사』 창간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0.

허선도, 「임진왜란론 -그 올바르고 새로운 인식을 위하여-」, 천관우선생학력기념 한국사학론총집, 정음문화사, 1985.

최영희, 「임진왜란에 대한 이해의 문제점」, 『한국사론』 22, 국사편찬위원회, 1992.

3) 허선도, 위의 논문.

대상으로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1592년에 일본군의 침략으로 인해 조선영토에서 조·명·일 삼국이 함께 싸운 7년전쟁, 그 전쟁의 실상과 기록만을 서술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7년의 전쟁기록인 사료문제와 개전시 조선의 국방실태, 전쟁중 조·일 양국의 해상전력 문제, 정유재란에 대한 무관심 등을 중심으로 한 임진왜란사 인식의 문제점에 대해서이다. 다음으로 서술하게 될 연구과제의 문제는 자연이 임진왜란사 인식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과제에 맞춰질 수밖에 없겠다. 인식문제에서 거론된 순서에 따라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 2. 임진왜란사 인식의 몇 가지 문제점

임진왜란의 역사는 16세기 말에 동북아 3국이 얹혀 싸운 전쟁사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한·중·일 3국의 관련사료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임진왜란의 사료는 흔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3국에 공히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관련사료의 양과 질, 양면에서 모두 주요사료들이 조선측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전국토를 유린당한 전쟁피해의 당사국이었다는 점에서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임진왜란사 전반에 걸친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료들은 조선측의 1차사료들이며, 일본측이나 명측의 사료로서는 부분적인 연구에 한정되거나 조선측 사료의 방증자료로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흔히, 일본이나 중국에도 한국에 못지않게 풍부한 임란사료들이 쌓여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임진왜란사를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는 국내가 아닌, 일본에 유학하여 현지의 사료부터 섭렵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갖기도 한다. 조선측 사료에 대한 불신경향을 갖는 잘못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한국의 임진왜란사 인식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지적되어야 할 문제점이라 하겠다.

임진왜란사 관련사료들이 조선측에 집중되어 있는 사실은 일본과 중국측 연구들을 분석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어떤 사료들을 이용하였는가 하는 것만을 살펴보면 될 일이다. 한 예로서 1995년 일본에서 출간된 北島萬次의『豊臣秀吉의 朝鮮侵略』을 통하여, 여기에서 활용된 사료들의 인용빈도를 보면 간단하다. 이 책의 사료색인을<sup>4)</sup> 통하여 사료가 인용된 빈도를 쪽수별 순위로 보면, 『선조실록』(91)·『선조수정실록』(53)·『임진록』(閔順之, 26)·『난중잡록』(조경남, 26)·『징비록』(류성룡, 21)·『明神宗實錄』(17)·『淺野家文書』(16)·『난중일기』(이순신, 15)·『黑田家譜 朝鮮陣記』(12)·『島津家文書』(12)·『再造藩邦志』(신경, 11)·『毛利家文書』(10)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 최다인용 5대사료가 모두 조선측 사료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측의 주요사료들이란, 일본군 참모본부가 1924년에 편찬한『日本戰史朝鮮役』문서에<sup>5)</sup> 집성한 자료들과 종군장수들의 군공기류 家藏文書들, 그리고 종군승려들의 일기류 자료들,<sup>6)</sup> 등 대부분이 부분적이거나 분산적인 자료들로 한정되어 있다.<sup>7)</sup> 여기에서 부분적이란, 하네요시의 전쟁명령서류 문서들이나 종군장수들의 군공기류 문서들이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사실을 밝히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임진왜란사 전반에 걸친 연구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측의 일기류 자료들을 보더라도 조선측의『쇄미록』이나『난중잡록』과 같이 임진왜란 전기간에 걸친 기록이 아니라 단기간의 기록들이기에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北島萬次,『豊臣秀吉の朝鮮侵略』(吉川弘文館, 1995), 색인(사료명) 9~11 쪽.

5) 『日本戰史朝鮮役文書』는 1589년부터 1599년 사이에 豊臣秀吉과 일본군 장수들간, 또는 일본군 장수들간에 오고간 공적문서류 246건을 가려 뽑아놓은 것들이다.

6) 『高麗日記』(鍋島直茂의 가신 田尻鑑種, 1592.4~7·9·10월, 1593.1~2월 참고), 『朝鮮日日記』(太田一吉의 從軍醫僧 慶念, 1597.6~1598.2 참고), 『西征日記』(小西行長의 從軍僧 天莉, 임란 초기 참고), 『朝鮮日記』(加藤清正 종군승是琢), 임진·계사년 일부 참고) 등.

7) 임진왜란사 관련 일본측의 사료들에 대하여는『임진왜란관련 일본문헌해제』(최관·김시덕 편, 도서출판 문, 2010)를 통하여 전반적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다.

중국측의 예로서는 최근에 발표된 한 논문을 통하여, 역시 거기에서 이용된 1차사료들이 어떤 것들이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임진왜란중 명군의 성분과 南兵의 동향에 대하여 고찰한 한 연구논문에 의하면<sup>8)</sup>, 명군의 동향에 대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측의 1차사료가 집중적으로 이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sup>9)</sup> 이 논문의 각주 77개항 가운데 典據註로 제시한 65개항 중 『선조실록』(『선조수정실록』 포함 24회 인용)을 비롯하여 류성룡의 『서애집』·신흠의 『상춘고』·이호민의 『오봉집』 등 조선측 사료가 46개항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곧 조선측의 사료가 아니고서는 임진왜란사 연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임진왜란사 연구에 필요한 주요사료의 대부분이 한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재인식하여야 하겠다.

사료에 대한 문제점 외에 임진왜란 7년전쟁의 실상과 관련하여 잘못 이해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논급하지 않을 수 없다. 임진왜란 초기에 있어서 침략군에게 대항했던 조선측의 병력주체는 의병(민병)이었다. 이 의병이 전국적으로 봉기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배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흔히 관군이 부실하고 무능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또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임진왜란이 발발하였을 당시에 훈련된 정규군이 과연 존재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평소에 조선왕조의 국토를 지키는 국군, 즉 상비군으로서 훈련된 군사들이 관군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전혀 그렇지 못하였던 현실에서, 전쟁이 일어난 후에야 현직의 병·수사나 지방관들이 농민을 불러모아 이끌었던 군사들이 관군이었고, 비관인의 지식인들이 모집하여 일어났던 군사들이 의병이었다. 그러므로 관군이나 의병의 하부구조는 똑같은 성분의 장정들이었던 것이다. 저희관의 신분에 따라 관

8) 楊海英, 万歷壬辰戰爭期間的南兵」(임진란7주갑기념 제1차 국제학술대회 논문집『정치와 외교 '동아시아 국제전쟁'』, 임진란』, 사단법인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2012, 51~70쪽)

9) 이 논문의 기본적인 1차사료는 河間豐山柳氏家文書 가운데 포함된 「唐將書帖」(『고문서집성』16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인데, 이 사료는 임진왜란 중 명의 장수들이 류성룡에게 보낸 간찰들을 집성한 것이다.

군과 의병이란 호칭이 달랐을 뿐, 모두가 급조된 민병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문제점은 병역제도의 허구성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양인 신분의 男丁에게 한정된 조선왕조의 병역의무는 병농일치의 군사제도를 근간으로 성립되었다. 따라서 병적에 오른 대부분의 군사들이 농민이었고, 이들이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국방군으로 전환하여 도성을 방어하고 각 지방을 지키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도성을 지켜야 할 ‘番上正兵’ 들에겐 일찍부터 代立과 代立價가 公定되어 공공연히 군사적 기능이 마비되었고, 지방의 营鎮을 지켜야 할 ‘留防正兵’ 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放軍收布制가 뿐 리깊이 관행화되어 있었으므로<sup>10)</sup> 병적상에는 군사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군사가 없는 허설현상을 드러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당시 일본군이 부산포에 상륙한 이후 무인지경을 행군하듯 진격하여 불과 18일 만에 도성에 입성하였던 원인이 여기에 있었다. 중앙과 지방 어디에도 진지를 지키던 국군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당시의 실정에서는 일본군의 급습 직후 순변사 李鎰이 서울에서 정예병 3백 명을 모집하여 경상도로 내려가고자 하여 병조의 選兵案을 보았을 때 모두가 군사들이 아니라 여염집이나 시정의 白徒들이었고 서리나 유생들이 반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3일이 지나서도 군사를 모으지 못하여 단신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을 정도였다.<sup>11)</sup> 경상도로 남하하던 이일이 조령을 넘어 문경·상주에 이르러 현지 지방관들을 동원하여 각 촌락을 수색함으로써 수백명을 모았으나 모두가 농민들이었고, 그 자신 또한 흘어진 백성들을 유인해 모집한 후에야 현지에서 군사훈련을 시켰다는 것이다.<sup>12)</sup> 이와 같은 실정에서 일본군의 침략을 받았으므로 훈련된 정규군이 없는 가운데 급조한 민병(의병) 조직에 의해 전쟁

10) 『한국군제사』 근세조선전기편(육군본부, 1968), 239~253쪽.

11) “李鎰欲率京中精兵三百名去 取兵曹選兵案視之 皆閭閻市井白徒 胥吏儒生居半 臨時點閱 儒生具冠服持試券 吏戴平頂巾 自遡求免者 充滿於庭 無可遣者 鎰受命三日不發 不得已令鎰先行 使別將俞沃 隨後領去”(『징비록』, 권1)

12) 『선조수정실록』 권26, 25년 4월.

을 치른 것이 임진왜란 초기의 실정이었다. 관군이었든 의병이었든 간에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로소 훈련을 해가면서 점차 전투에도 익숙해갔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군은 점차 정규군으로서의 기능이 살아나고 있었으나, 개전 초기에 있어서 조선에는 훈련된 정규군이 없었던 것이다.

조선에 정규적 국방군이 없는 상황에서 조총을 개인화기로 무장한 일본군이 월등한 군사력으로 조선침략을 감행하였다. 당시 조선정부는 일본이 섬나라란 점에서, 육상전력에 못지 않게 탄탄한 해상전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선초기에서부터 일본군은 해전에 능한 반면에 우리 측은 육전에 능하다고 판단하여, 만일 적이 쳐들어올 경우 그들을 육상에 끌어올려 능히 대적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sup>13)</sup> 그러나 임진왜란의 전쟁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그 반대현상이었다.

일본군의 무모한 침략전쟁은 오직 육전만을 대비하였을 뿐 해상전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못한 특징을 갖고 있었다. 섬나라 일본으로서는 어처구니 없을 만큼 사전에 국가적 차원의 해상군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조선침략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초전에 승승장구하던 침략군의 전세가 점차 기울어진 요인도 여기에서 비롯되었고, 그들의 침략전쟁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던 주요인으로 작용된 것도 이 점에 있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연구자 德富猪一郎는 豊臣秀吉의 조선침략전쟁이 실패한 주요인의 하나가 수군의 열세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시의 일본군은 거의 완전한 육상동물이었다. 그들은 호랑이를 물속에 던져놓은 것과 같은 모양이 되어 해전에서는 십분의 일의 전투력도 발휘할 수가 없었다.”<sup>14)</sup>라고 하였다. 임진왜란 해전의 실상이 이와 같

13) 세조 때 忠清全羅慶尚道都巡察使 朴薑 및 그 부사 具致寬의 啓文에서 “大低島夷 長於水戰 而短於驥戰 我國長於驥戰 而短於水戰 彼雖善水戰 我不以戰艦應之 而引以自北 使之下陸 用我長技 以騎兵臨之 庶合於禦寇之策”(『세조실록』 권6, 3년 정월 신사)이라고 한 것이 조선초기의 예였고, 임란 직전에도 비변사에서 논의하기를 “倭長於水戰 若登陸則便不利 請專事陸地防守 乃命湖嶺大邑城 增築修備”(『선조수정실록』 권25, 24년 7월)라고 하였다.

았던 사실을 우리가 잘못 인식해온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라 하겠다. 이에 대하여는 뒤의 연구과제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이다.

일본군이 해상전투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을 일으킨 결과는 1592년의 초기해전에서 본대로 전라좌·우수군을 주축으로 한 조선수군에게 완패하였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조선왕조는 난전에 국방에 대비한 정규군을 갖추지 못한 실정에 있었고, 이는 육상군 뿐만 아니라 해상의 수군 경우에도 차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에 있어서는 일본군이 조선수군에게 연전연패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무엇이었을까? 조선시대 이전부터 기본적으로 잘 갖추어진 수군제도가, 육상전투에만 길들여진 일본군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월등한 해상전력을 보유하였기 때문이었다. 전선 자체가 해상의 성체로 불리울 만큼 堅厚高大한 판옥선과, 중·장거리의 각종 艦載火器들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전통적인 수군제도 자체가 바다에 익숙한 해안지역출신의 군사들로 편성된 것 등이 해전승첩의 요인으로 작용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수군의 승첩배경과 관련하여 잘못 인식되어온 또 하나의 문제점을 지적하여야 하겠다. 1592년 초기해전에서 전라좌수군이 운용한 전선의 일종으로서 일본군에게는 盲船으로 알려진 거북선에 대해서이다. 이에 대하여 임진왜란해전시 조선수군이 일본수군을 연파할 수 있었던 동력이 ‘神將 이순신과 거북선의 위력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랫동안 한국인들의 뇌리에 각인되어온 ‘성웅 이순신과 거북선의 신화’였고, 이같은 역사인식은 아직도 변함없는 임란 해전사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임진왜란 해전사의 진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선 임진왜란시 건조된 거북선(龜船)은 모두 세 척에 지나지 않았고, 임진년 실전에 동원된 선박은 전라좌수영 본영 소속의 것과 방답진 소속의 것을 합하여 두 척이었다. 다른 한 척은 순천부 수군선소 소속의 거북선인데, 확실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나 1593년 봄에 순천부 수군선소(현 여수시 시전동 선소)에서 건조한 것으로 보

---

14) 德富猪一郎, 近世日本國民史『豊臣氏時代朝鮮役』상(일본 동경 民友社, 1925), 601~605쪽.

인다. 임란 초기해전에 있어서 거북선이 돌격선의 기능을 발휘하여 선체공격을 가함으로써 처음에는 위용을 보였고, 일본선단을 크게 놀라게 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난중에는 거북선이 해전승첩의 요체인 것으로 믿어 조정에서는 거북선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판단하였다.<sup>15)</sup>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의 평가는 달랐다. 한편으로는 선체 내부공간의 폐쇄성으로 인해 射夫의 전투활동이 불편했음을 알게 되었고, 판옥선의 위력과 중요성을 확인하였던 것이다.<sup>16)</sup> 거북선은 또한 판옥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희생자가 더 많았었다.<sup>17)</sup> 선봉의 돌격선이었으므로 일본군의 조총 사거리 내에서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임진왜란이 끝난 뒤, 이순신 휘하의 戰船監造軍官이었던 나대용이 거북선을 대체하여 鎗船이란 새로운 선체를 개발한 예도 있었다.<sup>18)</sup>

중요한 것은 조선의 전통적인 수군제도 자체가 실전에 익숙할 수 있게 편제되어 있었고, 일본의 전선과는 대조적인 구조와 성능을 보유한 판옥선의 우수성, 그리고 월등한 함재화력 등 전반적인 해상전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정부는 자국의 우수한 해상전투력을 미쳐 알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전을 모두 승리로 이끌었고, 일본군은 사전에 해상전투에 대비하여 전혀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수송용 선박으로 내침하여 패전을 거듭하였던 것이다.

15) 『선조실록』 권68, 28년 10월 병인.

16) “龜船雖曰利於戰用 射格之數 不下板屋船 一百二十五名 射夫亦不便宜…大概壬辰丁酉戊戌之役 皆賴板屋巨艦而得捷 此已見之驗也”(『선조실록』 권206, 39년 12월 무오).

17) 임진년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제2~제4차 출전결과를 선조에게 보고한 장계 내용, 즉 「당포파왜병장」·「전내량파왜병장」·「부산파왜병장」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전라좌수군 사상자 165명 가운데 판옥선 23척의 탑승자 중에서 141명, 거북선 2척의 탑승자 중에서는 24명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거북선 : 판옥선의 피해 비중이 2:1로 확인된 것을 보아서도 그 사실을 입증한다.

18) 『선조실록』 권206, 39년 12월 무오.

다음은 명이 조선에 군사를 파병, 조·명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싸운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이다. 전쟁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인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명군의 참전이 과연 조선을 구원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豊臣秀吉의 궁극적인 전쟁 목표가 명을 정복하려는 데 있었고, 따라서 명으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일본군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이것은 戰前에 이미 명측이 주지하고 있었던 사실이었으므로 조선측의 청원과 관계없이 자국의 방위를 위해서는 조기 참전이 불가피하였다. 즉 명으로서는 조선에서의 兵禍가 확산되어 明境에 이르기 전에 조선 영내에서 전쟁을 종식시켜야 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조선에 파병하여 일본군의 침략을 사전에 저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었다. 이 점은 특히 그들이 境外의 자체 방어선으로 설정해 둔 평양성이 일본군의 수중에 들어간 후에 파병이 결정된 것으로도 그 사실을 입증한다. 결국 명군의 조선출병은 자국의 방어를 위한 전략이었고, 출병의 본질이 조선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조선영토에서 조선군의 힘을 빌어 사전에 자국방어의 전쟁을 치른 것이었다.<sup>19)</sup> 이와 같은 문제는 종래에 ‘명군의 來援作戰’이니 ‘명의 救援戰爭’ 등으로 잘못 인식해온 명군의 참전개념이 올바로 재정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정유재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일본군의 재침양상에 대한 인식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일본군의 재침목적이 1차침략의 실패에 대한 보복전쟁이면서, 아울러 이번에는 조선의 남부지역만이라도 자국의 영토로 만들겠다는 계략이었다. 1차침략의 목적이 조선영토를 차지한 뒤 이를 발판으로 하여 중원의 대륙까지 정복하겠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보복 전쟁의 1차적인 목표를 ‘赤國’(전라도)으로 잡고, 호남지방 전역을 점령한 후에 순천의 오해처에 장기전에 대비한 철옹의 전쟁기지를 설치한 뒤 小西行長이 지역주민들에게 免死帖을 발급하는 등 점령군 사령관으로서의 영토 지배권을

---

19) 조원래, ‘명군의 출병과 임란전국의 추이’ (『한국사론』22, 국사편찬위원회, 1992), 133~134쪽.

행사하였다.<sup>20)</sup> 이같은 상황에서 약 1년 반 계속된 일본군의 재침전쟁은 조선의 병참기지인 전라도를 집중적으로 초토화시켰고, 양남지방을 중심으로 被擄人·附逆人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세계전쟁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비인도적 만행을 보인 것이 정유재란이었다.

당시의 만행은 일본군의 從軍醫僧이었던 慶念의『朝鮮日日記』를 통해서도 그 한 예를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1597년 8월초 일본군이 거제도를 거쳐 섬진강 하류에 상륙하여 전라도 침략이 개시되었을 때부터, 무차별하게 사람을 베어죽이고 닥치는 대로 약탈을 일삼았다고 기록하였다. 가는 곳마다 불을 질러 온통 검붉은 화염에 휩쌓인 전라도 땅이었고, 어린 아이들을 모조리 끓어 끌고가는가 하면 눈앞에서 그 부모들을 마구 베어버림으로써 서로 울부짖는 모습들. 그리고 남원성이 함락된 다음 날에는 성 안팎에 무수히 쌓인 시체들을 대하였는데 도저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광경들이었다고 기록하였을 정도였다.<sup>21)</sup>

그러나 일본군의 잔악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조선인이라면 닥치는 대로 죽이고 또 코를 절단하여 豊臣秀吉에게 바치는 만행까지 서슴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秀吉의 명에 따른 것으로서<sup>22)</sup> 참전장수들의 전공평가에 직결된 문제이기도 했다. 그것을 바친 수호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전공의 높고 낮음이 결정되었으므로, 그 대상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부녀자로부터 어린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모조리 베어서 바쳤다.<sup>23)</sup> 이것을 본국에 바칠 때는 소금에 절여 桶에 담아 수송하였으니, 어떤 장수의 기록에 의하면 자신의 부대에서는 통당 1천개씩을 담았으니 일시에 6桶을 보낸 일도 있었다는 것이

20) 太田秀春,『朝鮮の役と日朝城郭史の研究』(清文堂出版株式會社, 2006), 235~242쪽.

21) 北島万次,『朝鮮日日記·高麗日記』(株式會社そしうて, 1982)-秀吉の朝鮮侵略とその歴史的先駆-, 298~300쪽.

22) 처음에 秀吉이 휘하의 장수들에게 명령하기를, “年年發兵 盡殺彼國人空地 然後移居西路之人 十年如此 則功可成矣 人有兩耳 鼻則一也 割鼻以代首給 鼻各准一升 然後許可生擒云云”(『난중잡록』권3, 정유년 7월 기사의 註記)라고 하여 首級 대신 코를 베어 바치게 하였다.

23) 北島万次, 위의 책, 301~806쪽.

다.<sup>24)</sup> 현전하는 ‘鼻切り證書’는 1597년 8월 이후 전라도 진원·영광·금구·김제 등지에서 취한 것들이며,<sup>25)</sup> 현재 일본의 京都市 東山區에 있는 鼻塚(耳塚으로 지칭함)이야 말로 정유재란에서 희생된 약 10여만명의 耳鼻가 묻힌 유적이다. 이같은 일본군의 잔학성은 일제강점기의 정신대 문제에 못지 않은 만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역사교육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정유재란에 대한 인식문제에 있어서 빼놓아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다. 명량해전의 결과가 당시의 戰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명량대첩으로 인해 재침 이후 불리했던 전세가 크게 반전된 계기가 되었다고 인식해 왔다. 그러나 명량해전은 정유년 9월 16일 단 1회전의 전투에서 일본수군의 선봉 31척을 격파하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반작용으로 인해 육해상으로부터 전라도 연해지역에 집중된 일본군의 보복 공세는 최악의 전쟁피해를 불러왔다.<sup>26)</sup> 당시 수군통제사 이순신은 명량해역의 순류를 타고 31척의 일본선단을 급습, 대파한 뒤 12,3척의 판옥선을 이끌고 급히 전라우수영 해역을 탈출하였다. 해류에 편승한 조선수군의 급습으로 충격적인 패전을 당한 일본수군은 곧 바로 대선단을 이끌고 명량해역에 쳐들어왔고, 9월 하순에는 우상군이 나주·영암·강진·해남 등지의 전라우수영 관내 전지역을 장악하였다. 명량에서의 패전을 설욕하기 위해 조선선단을 추격하는 한편, 우수영으로부터 영광 법성포 앞바다에 이르는 해역을 쓸고 다니며 연해지역 일대의 촌락을 분탕질하였다. 이 때 수군통제사 이순신은 명량해전 이후 20여일 만에 소규모의 판옥선단을 이끌고 우수영에 돌아왔다가 일본군의 만행이 자심한 것을 확인한 후 다시 현지에서 철수하여 목포 고하도에 진을 쳤다.

전라도 해안지역에 집중된 일본군의 보복공격은 정유년 9월 하순부터 11월 까지는 우수영 관내에서 계속되다가 이듬해 3월부터는 전라좌수영 관내로 옮겨진 양상이었다.<sup>27)</sup> 명량해전 직후 약 일주일이 지난 뒤, 강항이 전라우수영

24) 北島万次, 위의 책, 303쪽.

25) 北島万次, 위의 책, 305쪽.

26) 조원래, 「명량해전후 일본군의 공세와 연해지역 의병항전」(『군사』제7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69~74쪽.

관내 무안현의 낙두落頭란 해안마을의 광경을 묘사한 기록에 의하면, “무수한 적선들이 항구에 가득 차 있어 흥백기가 햇빛에 번쩍거리는 데 우리나라 남녀들이 서로 뒤섞여 해변 양쪽에 쌓인 시체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올부짖는 곡성이 하늘에 사무치고 바닷물도 오열하는 듯했다.”<sup>28)</sup>라고 하였으니, 그 참상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명량해전의 보복공격이 수륙 양방으로 집중된 이 지역의 전쟁피해는 9월 하순 이후 10월 하순 사이에 가장 극심하였다. 특히 해남·강진지역에 주둔한 島津忠豊의 군사와 鍋島勝茂의 군사는 주민들에게 포고하는 방문을 붙여서 포섭·회유·공갈·협박을 겸행하였다. 항리에 돌아와 살면 생업을 보장하겠다는 조건하에 조선인 관리나 장병들을 색출하여 誅戮할 것을 권장하고, 그 처자와 부하들도 모두 살해할 것과, 관인들의 가택은 불을 질러 없앨 것이며, 누구든지 관인들이 숨어있는 곳을 알려주는 자에게는 포상하겠다는 것 등이<sup>29)</sup> 그것이었다.

정유재란은 처음부터 전라도 집중공략을 목표로 시작된 후 명량해전의 여파로 인해 일본군의 보복공격을 더욱 더 가열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1597년 9월 하순 이후 이듬해 종전기까지 호남지방 전역에서 자행된 침략군의 잔악행위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해는 현재 요원한 실정이다.

### 3. 임진왜란사 연구의 선행과제

위에서 본대로 현재 임진왜란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7년전쟁사 인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 번째 원인은 일본군의 침략전쟁을 극복할 수 있었던 동력이 의병활동이었다는 점에서, 지난 날의 임진왜란사 연

27) \_\_\_\_\_, 위의 글, 79~83쪽.

28) “二十四日 至務安縣一海曲 名曰落頭 賊船數千艘充滿海港 紅白旗照耀天日  
我國男女太半相雜 兩邊積屍狼藉如山 哭聲徹天海潮嗚咽”(『수온집』권4, 「간양록」(涉亂事績)).

29) 北道萬次, 『豊臣政權の對外認識と朝鮮侵略』(東京 校倉書房, 1990), 263쪽.

구가 이 분야에 집중되어 다른 분야의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역사교과서가 새로운 연구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과 아울러 고질화된 영웅중심의 임란사극 드라마류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선행과제를 중심으로 위에서 지적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한 연구방향을 검토하기로 한다.

### 1) 사료에 대한 연구와 활용문제

앞에서 강조한 대로 임진왜란사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대부분의 사료들은 조선측에서 남긴 것들이며, 오늘날 한국의 한국학연구기관에 집중적으로 쌓여 있다. 그리고 관련사료들을 남긴 인물들은 임진왜란을 직접 겪었던 당대의 지식인들이었다. 특히 관변에서 전쟁을 경영·관리했던 관료들이 남긴 각종 공거문류의 자료들이 무수히 많다. 당시에 쓰여진 疏箚啓狀類의 문서들과 간독·일록·잡기류 등의 자료들은 오늘날 대부분이 재정리되어 문집형태로 간행되어 있다. 따라서 이 문집류 자료들은 외국의 연구자들도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만 후대에 이르러 복간이 거듭되는 과정에서 첨삭·가필되거나, 과장·미화·폄하·誣毀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세밀한 사료비판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 때문에 국내 연구자들의 임란관계 사료연구가 더욱 절실하다.

임진왜란을 체험하고 전쟁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남긴 조선측 관료들의 문집은 실로 방대하다. 현재 그 대부분은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간행한 한국문집총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해온 임진왜란사 연구에서 이 문집자료들을 사료로 활용하여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별적인 인물연구나 의병활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문집자료들을 원용하는 정도에서 그쳤을 뿐이다. 즉 연암대첩의 주인공인 이정암의 의병활동을 연구할 때에 부분적으로 『四留齋集』이 이용되고, 초유사 김성일의 의병활동을 서술할 때에 『학봉집』이 인용된 정도였다. 류성룡

의 『징비록』에 대한 연구에는 깊은 관심을 보였지만, 그가 명군 장수들이나 김성일 등에게 보낸 난중의 생생한 사료들, 즉 『서애집』에 담긴 서간류 자료들을 검토하지는 못하였다.

한국문집총간에 수록된 임진왜란사 관련의 문집자료는 당대의 인물이 아닌 경우에도, 즉 16세기 말로부터 조선후기에 이르는 후대 인물들의 문집 가운데서도 많은 사료원을 발견할 수 있다. 후대 인물들의 문집속에 임란사료들이 없을 수없는 까닭은 전쟁의 영향과 여파가 난후에 계속되는 과정에서, 전쟁사가 재생산되고 또한 거듭 재론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관련사료들이 담긴 문집 전부를 당장의 연구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아니다. 임진왜란기를 살면서 선조와 함께 전쟁을 직접 관리하고 경영했던 인물들의 문집자료들을 분석하고 활용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조실록』과 같이 더없이 중요하면서도, 불완전한 기사들이 적지 않은 관찬사료들을 보충하고 수정·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어 있는 『한국문집총간』을 통하여 대체로 보더라도 약 70여 종의 문집들은 임진왜란에 직접 관여했던 인물들의 문집으로서 일차적인 분석대상이라 할 수 있다.<sup>30)</sup> 그 중에서도 특히 정탁(1526~1605)의 『藥圃集』·황정우(1532~1607)의 『芝川集』·윤두수(1533~1601)의 『梧陰遺稿』·성흔(1535~1598)의 『牛溪集』·이해수(1536~1599)의 『藥圃遺稿』·정철(1536~1593)의 『松江集』·윤근수(1537~1616)의 『月汀集』·이산해(1539~1609)의 『鵝溪遺稿』·김성일(1538~1593)의 『鶴峰集』·정곤수(1538~1602)의 『栢谷集』·김득(1540~1616)의 『栢巖集』·김우옹(1540~1616)의 『東岡集』·이정암(1541~1600)의 『四留齋集』·류성룡(1542~1607)의 『西厓集』·정구(1543~1620)의 『寒江集』·이순신(1545~1598)의 『이충무공전서』·이원익(1547~1634)의 『梧里集』·심희수(1548~1622)의 『一松集』·유근(1549~1627)의 『西壻集』·이정형(1549~1607)의 『知退堂集』·이호민(1553~1634)의 『五峰集』·이항복(1556~1618)의 『白沙集』·이덕형(1561~1613)의 『漢

30) 이 논문의 후미에 붙인 <부록>의 내용('한국문집총간소재 임진왜란사관련 사료내용<임란관여인물편>')이 그것이다.

『陰文稿』·최현(1563~1640)의 『認齋集』·이정구(1564~1635)의 『月沙集』·신흠(1566~1628)의 『象村稿』·안방준(1573~1654)의 『隱峰全書』 등은 우선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문집들이다.

이들 문집자료들 가운데 임진왜란 사료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전쟁중에 오고간 공거문류와 간독류의 기록들이다. 위에 열거한 문집들 모두가 그와 같다. 일예로서 성훈의 『우계집』 중에서 관련사료들을 예기해 보기로 하자. 성훈은 전쟁의 폐허속에서 반관반민으로 고난의 삶을 영위하다가 종전 5개월 전에 생을 마친 지식인으로서 난중의 갖가지 사실들을 기록으로 남겼다. 『우계집』은 원집 6권·속집 6권·연보 1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내용별로 보면 시 2권·章疏 3권·간독 5권·잡저 2권으로 채워져 있다. 권별 분량으로 보면 簡牘과 章疏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실질적인 사료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疏·箭·啓로 묶어진 장소 3권 가운데 난중에 쓰여진 것은 원집 권3 중의 19건(1592년 4월부터 1594년 말까지)과 속집 권2에서 3건을 포함하여 모두 22건이다. 이 가운데 「上王世子箭-附時務便宜十五條」(임진 7월)·「東朝除檢察使讓開城留守李廷馨狀」(임진 8월, 난초 개성지방 행정부재의 난맥상)·行朝上便宜時務(9개조)」(임진 12월)·奉審復命後啓辭」(계사 9월, 일본군의 성종·중종릉 破毀事件)·便宜時務畫一啓辭」(갑오 5월)·論奏本事榻前啓辭」(갑오 5월, 對明奏本에 대한 논란사건)·擬申上自効疏」(갑오 7월, 명의 對日講和策에 대한 조정의 갈등상) 등은 임진왜란 전반기의 전쟁실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료들이다. 특히 임진년 7월 왕세자 광해군에게 올린 15개조의 시무책과 12월에 선조에게 올린 9개조, 그리고 1594년 5월에 선조에게 올린 14개조의 시무책은 모두 장문의 국난대응책을 개진한 중요한 사료들이다. 즉 난초에 나라가 망한 것으로 판단한 수도권 민중들의 反官附倭의 실상기록, 김천일의 의병이 경기도에 진군하여 적과 싸운다는 소식이 널리 전파됨으로써 민심이 돌아서 국력회복의 의지를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내용, 그리고 평소 군사훈련이 없었던 조선군으로서는 일본군과의 정면 교전이 어렵기 때문에 요해처에 복병하였다가 적을 급습하는 매복전법이 불가피하

다는 전술, 계사·갑오년간에 전국에 만연한 전염병으로 인한 전쟁의 참상기록 등, 난중의 국내실정을 세밀하게 연구하는 데 빼놓아서는 안될 사료들이다.

또한 『우계집』의 간독 중에는 임진왜란사 1차사료로서 활용되어야 할 생생한 자료들이 많다. 1592년 7·8월 이후 1598년 3월 사이에 가까운 서인계 知己 들, 정철·윤두수·이해수·황신·변이중 등에게 보낸 성흔의 편지글 가운데는 반드시 연구에 반영해야 할 사료들이 적지 않다. 이를테면 임진년 4월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평안도 사족들이 대거 강원도로 피난하는 통에 길이 막힐 정도였다는 사실,<sup>31)</sup> 성종과 중종의 능이 일본군에게 파헤쳐져 유체가 불타버린 사건,<sup>32)</sup> 각처를 떠돌며 피란생활을 하던 사대부들의 짚주림과 전쟁의 참상에 대한 내용,<sup>33)</sup> 경기도 지방에 주둔한 명군의 횡포와 노략질로 인해 현지의 주민들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sup>34)</sup> 황해도의 실정을 들어서 노비들이 상전을 해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난중의 사회상<sup>35)</sup> 등등에 관한 갖가지 사실들이 편지글에 잘 나타나 있다. 또 하나의 예로서, 난초의 절박했던 상황에서 성흔이 정철에게 보낸 서간의 일부를 보자.

저는 지금 검찰사의 명을 받고서 병든 몸으로 전선에서 군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옷과 두건을 모두 왜적들에게 빼앗겨 버렸으니 노령의 여벌 옷이 있거든 이 급한 처지를 도와줄 수 있으실런지요?<sup>36)</sup>

이 글은 임진년 9월, 성흔이 58세의 노령에 개성유수 이정형 밑에서 검찰사 임무를 수행할 당시, 정철이 兩湖都體察使가 되어 강화도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도움을 청한 글의 일부이다. 침략군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사대부가

31) 『우계집』, 속집 권5, 與全國老命碩』3.

32) 『우계집』권5, 與李參議(海壽)別紙』.

33) \_\_\_\_\_, 與李景魯希參』 및 「與金希元長生」.

34) \_\_\_\_\_, 與李達夫培達』 및 「全國老命碩」 4.

35) \_\_\_\_\_, 與子文濬』8.

36) “渾今有檢察使之命 病人驅策戎馬間 極以爲民 衣巾盡爲賊所奪 老兄有副衣 可以相救此時之急乎”(『우계집』속집 권3, 與鄭季涵澈』5)

고위직 동료에게 의복을 구걸했던, 전란의 실상을 생생하게 나타낸 사료가 아닐 수 없다.

당대 인물들의 문집자료를 통하여 중요한 임란관계 사료들을 다량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당대의 일기류 자료에 대한 분석작업과 비교 연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겠다.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는 사료들이지만, 조경남의 『난중잡록』·오희문의 『쇄미록』·이순신의 『난중일기』·박동량의 『임진일록』(『기재사초』) 이로의 『용사일기』·정탁의 『용사일기』(『避難行錄』)·이정암의 『西征日錄』과 「行年日記」<sup>37)</sup>·정경운의 『孤臺日錄』·이탁영의 『征蠻錄』(『壬辰變生後日錄』)·조정의 『임란일기』·곽수지의 『浩齋辰蛇錄』·정사성의 『임진일록』·이정희의 『松瀾日記』·정경달의 『盤谷日記』·강항의 『간양록』·노인의 『錦溪日記』·정경득의 『萬死錄』·정희득의 『月峰海上錄』·鄭好仁『정유피란기』·유사경의 『六有堂日錄』(浮海錄)·진경문의 『曳橋進兵日錄』 등 모두 해아리기가 어려울 만큼 많은 일기자료들이 있다. 최근에 이르러 순천김씨 가문의 金琮(1533~1593)이 남긴 『임진일록』<sup>38)</sup>이 새로 발굴되어 현재 그 내용이 분석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후에도 새로운 자료들이 발굴될 여지도 있을 것이다.

임진왜란 당대의 인물들이 남긴 문집과 일기자료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다시 연구되어야 할 사료가 관찬의 『선조실록』이다. 『선조수정실록』도 물론 함께 포함되어야 할 대상이다. 『선조실록』 221권 가운데 임진왜란 7년간의 기록은 제26~107권에 걸친 82권의 분량이다. 난후 11년간의 기록이 114권인데 전후의 수습 및 포상·복구의 문제들을 포함한 대부분이 임란전

37) 『서정일록』은 임진년 4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156일간의 일기로서 난초의 피난기록과 해서지방의 의병활동에 대한 기록이 전부이다. 「행년일기」는 『사류재집』권8에 수록된 것으로서 형식은 생애 전반에 걸친 일록이지만, 내용은 1592~1600년 10월 사이의 기록이 거의 대부분이다. 『서정일록』은 1977년 번역, 출간(이장희 편집·국역, 탐구신서 제 204호, 탐구당)되었으며, 2006년에 이장희 교수가 실물크기로 편집·간행하였다(플러스에감, 비매품, 2006).

38) 2012년 9월,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된 고도서 가운데 있던 120쪽 분량의 이 일록을 정구복 교수가 발굴, 깨폐 '올바른역사를 사랑하는모임' 공동연구」(<http://cafe.daum.net/allsamoo/SSU8/9>)에 소개하였다.

쟁과 관련된 기록들이다. 따라서 『선조실록』 중의 앞부분 25권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임란관계 사료인 셈이다. 『선조수정실록』의 경우에는 총 42권 중 17권이 임진년 이후의 기록들이다.

1610년(광해군 2)에 편찬된 『선조실록』은 북인 중심의 당파성이 짙게 깔린 편파적인 기록들이 많고, 1649년(효종 즉위년)에 이루어진 『선조수정실록』의 경우엔 李植 등의 서인 중심으로 편찬되었다는 점에서 역시 면밀한 사료비판을 요한다. 임진왜란 중의 기록 가운데는 선후가 바뀐 기사, 1개월 이상의 간격 간격이 큰 기사들이 조합하게 서술되었거나 인명이 잘못되고, 시비선악이 전도되어 있는 노골적인 謬筆性 기사들도 없지 않다. 특히 1593년 10월 선조가 환도하기 전의 기사들 중에 잘못된 기록들이 많다. 만약 외국의 연구자들 가운데 당시의 국내정세를 잘못 이해하는 상황에서 이 사료들을 이용할 경우에 초래할 문제점도 있다. 『선조실록』에 대한 엄격한 사료비판과 심도깊은 연구가 전제된다면 임진왜란사 연구에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사료는 없을 것이다. 덧붙여 강조할 것은 임진왜란사 기록이 선조대의 실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다. 임진왜란 7년전쟁의 역사가 조선후기까지 거듭 논의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재평가되는 기록들이 후대의 실록에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선조실록』 중심의 관찬사료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선행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할 사료연구의 작업은 또 남아 있다. 앞에서 서술한 문집자료들과 일기자료, 그리고 관찬 사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재정리하여 임란관련 모든 사료들을 집대성하는 연구작업이 그것이다. 이 작업은 『선조실록』을 모본으로 하되 기존의 기사들을 수정·보충하여 정본화 함으로써 7년전쟁사를 재구성하는 형식의 사료총서가 편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7년전쟁사 연표가 세밀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갖가지 전쟁상황도 등이 아울러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임진왜란사 전반에 걸친 각 분야의 연구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국내에서 뿐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의 연구자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2) 조선의 국방실태와 조·일 양국의 해상전력 문제

임진왜란 7년전쟁의 역사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침략전쟁의 원인으로부터 전쟁의 결과와 영향에 이르기까지 숱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많은 과제들 중에서도 선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문제는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어 어떤 상태로 진행되었는가 하는, 전쟁의 실상을 밝히는 문제가 정확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일본군의 전력과 침략전쟁의 양상이 조선측의 국방력과 전쟁의 승패에 어떻게 작용되었는가? 왜 조선에서는 정규군이 아닌, 민병이 침략군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가? 해양국가의 일본군은 왜 해상전투에서 매번 패하였는가? 이와 같은 전쟁사의 기본적인 과제부터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개전 초기에 있어서 망풍대궤로 표현되었을 만큼 싸워야 할 국군이 없었던 조선측의 실정과 함께, 반대로 해상전력에 있어서는 조·일 양국 사이에 현격한 차이를 보였던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1) 상비군이 없었던 조선의 국방실태 - 초전패퇴의 배경 -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1592년 일본군의 침공 직후, 불과 18일 만에 도성을 내놓았을 만큼 조선왕조의 국방력을 부실하기 짜이 없었다. 그 근본적인 요인은 허설화된 병역제도로 인해 훈련된 상비군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전 초기에 급습을 당했을 때 경상도 어디에도 무장된 정규군은 없었고, 이와 같은 현상은 일본군의 침략을 받은 전국 어느 곳에서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난후에 이산해가 선조에게, “도성방어에 대한 계획을 세워두지 않고 있다가 지난 일을 답습하는 것에 대해 단단히 징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던 것처럼,<sup>39)</sup> 도성을 지키는 군사조차 없었던 것이 당시의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 못하였다. 1960대에 육군본부에서 편찬한 『한국군체사』(근세조선전기편) 제2장의 조선전기 군사제도의 동요』에서<sup>40)</sup> 전반적

39) 『아계유고』 권5, 陳弊箚 1.

40) 집필자 이태진은 제1절에서 「군역의 변질과 납포제의 실시」, 제2절에서 「중

인 실태를 광범위하게 검토한 것이 유일한 연구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선전기 군역의 실태와 임진왜란 전의 국방실태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없고서는 조선측의 일방적인 초전패퇴의 요인을 설명할 수가 없다. 또한 난초에 충의군을 표방한 민병이 전국 각지에서 봉기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난초의 관군실태에 대한 한 예, 즉 관리가 모집하여 지휘했던 군사들이 어떤 모양이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성흔이 왕세자 광해군에게 올린 시무책 가운데 일부이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비록 대장이나 원수라도 친병이 한 명도 없어서 폐전하였을 때도 자신 한 사람만 남아 있을 뿐이며…수령들은 또 친병이 없어 적이 경내에 쳐들어오면 아랫사람들이 다 흘어져서 촌민들을 호령할 수가 없으며, 촌민들은 또 수령을 경시하여 해치려는 마음을 품는 자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병사들을 불러 모으려 해도 명령에 응하지를 않아 군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sup>41)</sup>

즉 소위 관군의 장수들이나 지방관 밑에는 평소부터 자신과 함께하는 친위 병이 없었던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전쟁이 발발한 상황에서 관군동원의 책임을 맡고 있었던 지방관들이 군사를 모아 전투에 임할 수 없었던 실정을 말해준다. 설령 군사들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 군사들이란 평소에 훈련되지 못한 농민들이었으니 전투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 이산해가 선조에게 올린 陳弊箚에서 말하였듯이, 매번 선발

---

양 및 지방군제의 변화』, 제4절에서 16세기말 국방태세』에 대하여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논급하였다. 특히 제4절의 2에서는 「임진왜란 직전의 방어태세」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진관체제의 방어전법이 을묘왜변 이후 제승방략으로 개편되었다는 것과 거기에 따라서 초전에 임한 관군장수들의 방어태세에 관해서만 서술하였다 뿐, 휘하 군사들의 병력실체가 어떠하였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급한 바가 없었다.

41) “至於今日 則雖大將元帥 無一親兵 奔敗之時 只○○單身 所以極敗無○○○  
守令又無親兵 賊到其境 下人盡散 無以號令村民 村民輕視 多有謀害之心 所  
以號召不應 不能起兵矣”(『우계집』권3, 時務便宜十五條).

되는 군사들이란 모두 농민들일 수밖에 없었고, 논밭에서 김이나 매던 무리들을 전쟁터로 몰아넣게 되었으니 적을 막아낼 수 없었다고 강변했던 것이다.<sup>42)</sup> 일본군의 침략을 받은 지역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노골적으로 국가를 배반하는 행위까지 보였고, 지방관이 병사들을 모집할 때마다 활을 당겨 위협하며 육설을 펴부었고, 수령이나 사대부로서 피난하는 자들을 속박하여 일본군에게 넘기려 하였다. 그리고 고을의 아전과 백성들 중에는 군량과 어물이나 육류, 술과 과일을 실어다가 적에게 주는 자가 길에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 난초의 실정이었다.<sup>43)</sup>

이와 같이 민심이 등을 돌린 가운데 난초에 전투를 수행할 국군이 없었던 것은 오래 전부터 고질화된 병역제도의 허구성에서 비롯되었고, 그 난맥상은 육해상군이 모두 마찬가지였다. 임진왜란 발발 직전에 연해지역의 수군실태를 지적한 글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은 전라도 옥과출신의 의병장 유행로가 조정에 올린 상소문 가운데 일부이다.

수군으로 말하면 연해안 각 고을에 모두 전선과 군사들이 배정되어 있고, 또 거기에는 定額이 있어 모두 수영에 소속되어 있는데 수영에서는 각읍으로부터 錢布를 거둬들이고서도 留陣하는 병사들을 양성하지 않고 있으니 어찌 원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 때문에 수군들 중에 훌어져 도망치는 자가 육군보다 배나 더 많습니다. 그리하여 水操의 큰 훈련이 있을 때에는 사람을 고용하여 충당하고 있으며, 더구나 전선들은 기간이 지나서도 수리하는 일이 없어 좌우가 다 무너지고 깨져서 단지 형체만 그대로일 뿐이니 만약 큰 바람이라도 치면 금방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sup>44)</sup>

이렇게 보면 난전의 수영과 수군실태에 대해서도 짚작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군이 처음 상륙한 경상좌수영 관내에서는 적의 침공을 막으려 했던 단 한척의 전선도 없었고, 뿐만 아니라 경상좌수사 박홍이 가장 먼저 수영을 탈출

---

42) 『아계유고』권5, 「진폐차」2.

43) 『우계집』권3, 便宜時務畫一啓辭.

44) 『월파집』권1, 「임진상소」3.

하였으니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난전에 거듭된 왜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았던 해방실태 역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良人男丁을 근간으로 제도화된 국초의 군역제도에서부터 16세기에 이르러 변질되기 시작했던 군사제도와, 그리고 명종·선조조에 이르러 더욱 심화된 국방해이 실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연구가 새롭게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 아울러 함께 논의되어야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세조 때부터 정립된 지방의 군사조직이자 방위체제였던 진관체제, 이것이 을묘왜변을 계기로 '制勝方略'이란 새로운 방위체제로 개편된 데에 따른 난초의 방위전략 문제이다. 이 제승방략의 제도에 대하여는 기존의 연구들이 있었음에도<sup>45)</sup> 불구하고 임진왜란시 관군의 본질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못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해 역시 미진한 그대로이다. 제승방략의 방위체제로 인하여 난초에 경상도에서 중앙의 京將들과 지방관들 사이에 軍令不一의 혼란상까지 가중되었던 것이다.

세조 때에 시작된 진관체제는 각 도에 수 개의 진관조직을 갖추어 도내의 군사들을 가까운 진관에 분속시킨 다음, 유사시에 각 진관의 군사책임자(당해 지역의 수령)로 하여금 그 지역의 방위 책임을 맡게 하는 自戰自守의 전법이었다. 따라서 어느 한 지역의 군사가 패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인접지역에서 對敵堅守케 하여 그 책임구역을 방어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 방어체제이다. 그런데 을묘왜변을 계기로 하여 새로이 도입된 제승방략의 체제는 군사 배치와 지휘계통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진관체제하의 병력 감소와 군사기능의 저하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일본군의 침략에 대비하여 일정지역에 대한 집중적 방어가 시급하였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sup>46)</sup> 즉 전쟁이 발생하면 각 지방의 수령이 그 지방의 군사들을 인솔하여 '信地'(미리 약정된 집결지)에 대기시킨 다음, 중앙으로부터 파견되는 도원수·순변사·방어사 조방장 등의 경장들이 당도하기를 기다렸다가 본도의 병 수사와

45) 허선도, 「제승방략연구」상·하 - 임진왜란 직전의 방위체제의 실상 -, 『진단학보』36~37, 진단학회, 1973~1974.

이겸주, 「임진왜란전 조선의 국방실태」, 『한국사론』22, 국사편찬위원회, 1992.

46) 허선도, 「제승방략연구」하, 『진단학보』제37호, 15쪽.

함께 그 군사들을 분속시켜 지휘통솔하는 방위체제이었다. 종래의 진관체제 역시 문제점이 없지 않았지만 제승방략 체제의 허점이 작지 않았다. 국지전이 아닌 전면전쟁이 일어났을 때엔 전혀 유용성이 없는 방위전략이었기 때문이다. 진관체제에서는 한 지역의 진관이 무너지더라도 다음 진관에서 대적할 수 있겠지만, 제승방략에서는 일단 방어선이 무너졌을 경우엔 거기에 대응할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평소에 전혀 상면조차 없었던 생면부지의 將卒間이고 보면 군사행동의 일치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2) 조선의 수군제도와 일본군의 해상전력 부재실태

임진왜란의 7년전쟁사에서 매우 불가사의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조·일 양국의 해전승패와 그 배경에 관한 부분이다. 해양국 일본은 해상전투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해로를 통한 조선침략을 감행하였고, 조선은 일본의 장기가 해전인 것으로 오판하여 해상에서의 대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육상전투만을 대비하였다. 양국의 전쟁준비가 어이없이 무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일찍부터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일본은 섬나라이면서도 옛부터 작은 범선을 사용하여 계절풍을 타고 해상을 왕래하는 정도의 선박밖에 발달되지 않았다. 해국이면서도 조선술이 발달하지 못한 관계로 가마쿠라시대로부터 중국과 왕래가 빈번해진 무로마치시대에 있어서도 그들의 선박은 중국인 기술자들을 동원하여 건조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수군제도 또한 없는 것과 다름없었으니, 豊臣秀吉의 전국통일 과정에서 보더라도 큐슈전투(九州役)나 오다와라전투(小田原役)를 막론하고 수군이 군수품과 군량을 운반하는 것 외에는 다른 임무가 없었던 것이다.<sup>47)</sup> 그리고 이와 같은 사정은 임진왜란을 일으킨 당시까지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47) 해군본부 전사편찬관실, 『한국해양사』(대한군사원호문화사, 1954), 241쪽.

조선침략에 앞서 豊臣秀吉이 수년 전부터 운송선 준비에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전투용 전선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조차 갖지 못했다가 임진년 4월 19일, 이미 전쟁을 일으킨 뒤에야 소위 警固船(군선)에 관한 지령을 내렸을 정도였다. 이때 풍신수길의 명을 받은 장수들은 명목상 수군으로 편성된 脇板安治·九鬼嘉隆·加藤嘉明 등이었으나 그들에게 명이 전달되었을 때는 모두가 육전에 참가하여 경성 북방지역에 진출해 있었을 뿐 아니라 이미 이순신 휘하의 조선수군에 의해 그들의 작전기지인 영남 해역이 유린되기 시작한 뒤였다. 그 뒤 위의 수군장들이 모두 남하하여 해전에 참전한 결과가 곧 한산도 패전이었고, 이 패보를 접한 풍신수길이 7월 중순 나고야에 있던 藤堂高虎에게 또 다른 명령을 하달하였다. 즉 조선수군에게 대처할 원군을 급히 동원하여 참전할 것과 전투용 전선을 준비하도록 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전선 준비란 새로운 전선의 건조가 아니라 대형 운송선을 개조하여 전선으로 활용하라는 것이었다.<sup>48)</sup>

해상전투에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닌 장비가 곧 전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수송용 선박을 군선으로 전용하였던 데 반하여 조선수군의 선박은 제도적으로 처음부터 전투용으로 건조된 전선이었다. 당시 조선수군이 보유한 주전선은 판옥선이었지만, 그 밖에도 돌격선의 기능을 갖춘 거북선과 판옥선의 부속선으로 개발된 挾船과 徒候船 등이 따로 있었다. 판옥선은 을묘왜변을 전후한 시기에 처음으로 건조된 혁신적인 전함으로서 그 특징은 무엇보다도 크고 무겁고 튼튼하다는 것이었다. 선체가 커서 많은 전투원과 화포 그리고 각종 군수품을 적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선체가 높았기 때문에 적이 기어오르기 어려운 반면에 여기에 탑승한 수군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화포를 발사 할 수 있는 장점까지 갖고 있었다.<sup>49)</sup> 특히 舷側이 매우 높아서 선상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웠으므로, 일본수군에게는 그들의 전통적인 전법이었던 登船肉

48) 有馬成甫, 『朝鮮役水軍史』(海と空社, 1942), 185~186쪽.

49) 장학근, 『왜군격퇴의 전략전술(해전)』(『한국사』 29, 국사편찬위원회, 1995) 205쪽.

縛戰(Boarding tactics)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반대로 일본의 關船은 선형이 가늘고 길 뿐 아니라 선체가 얕게 제작되어 매우 약했고, 둑 역시 매우 단순하여 逆走性能이 좋지 못한 四角單帆으로서 조선측의 러그 세일형 雙帆의 기능에는 미치지 못하였다.<sup>50)</sup> 따라서 임진왜란중 조·일 양국의 수군은 모든 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海と水軍の日本史』에서 佐藤和夫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조선수군은 왜구의 침략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오랜 전통을 갖고 있었으며, 수군제도 자체에 있어서도 군사조직이나 지휘체계가 정연하였기 때문에 명량해 전에서는 불과 10여척의 전선으로도 많은 일본선박을 격파할 수 있었던 예를 보여준 것이다. 반면에 일본수군은 중세 해적단으로 불리우는 전통수군을 흡수하여 재편성한 군사들로서 諸大名의 수군들이 연합된 통일성이 없는 군사들이었으며, 豊臣秀吉 직속의 수군은 있어도 일본국가의 수군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왜구 아래의 약탈적 공격적 성격이 강한 데다가 육상군처럼 남보다 앞서 공격하려는 공명심이 강했으므로 諸將의 작전지휘체계도 일치되지 못하였다. 조선수군은 해안경비를 그들이 전담방위하고 있었으므로 오직 그들의 목적은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는 것 외에 개인적인 공명심은 필요없었던 것이다.<sup>51)</sup>

즉 당시의 일본수군이란 중세 해적단을 계승한 諸大名 휘하 오합지졸의 군사들로서 일본국의 정규수군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有馬成甫 역시, 히데요시가 조선침략을 시작하였을 당시 해상전투를 염두에 둔 수군편성은 계획조차 없었다고 하였다. 옥포·당포·당항포 등의 해전에서 일본수군이 거듭 패하고 난 후에야 그 대책으로서 임진년 7월초 이후에 들어와서부터 비로소 九鬼嘉隆·加藤嘉明·藤堂高虎·脇板安治 등의 수군장수들을 해전에 투입하였으며, 조선수군의 존재나 그 전력에 대한 정보에 있어서는 전혀 관심조차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sup>52)</sup> 뿐만 아니라 수군장으로 알려진 그들 모두가 수군과는 거리가

50) 김재근,『속한국선박사연구』(서울대출판부, 1994), 144쪽.

51) 佐藤和夫, 『海と水軍の日本史』(原書房, 1995) 下, 309쪽.

52) 有馬成甫, 『朝鮮役水軍史』(海と空社, 1942), 50~54 쪽. 또 이와 관련하여 中野等은 “임진왜란시 일본수군의 경우에 兵員·諸物資補給의 체제나 수군편

먼 육장출신들로서 전국통일 과정에서 전공에 의해 大名이 됨으로써 히데요시  
휘하의 수군세력에 편성된 인물들이었다.<sup>53)</sup> 따라서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당시  
일본에서는 해상전투를 전담해야 할 수군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상  
전투에 대비하지도 않았음을 입증한다.

이와 같은 조·일 양국의 수군력과 해상전력의 차이는 임진년에 벌어진 모든  
해전에서 일본군의 완패로 실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1921년 일본에서 德富猪一郎이 임진왜란시 일  
본수군의 패인에 대하여 ‘전선의 취약성’·‘해전 미숙’·‘군령의 不一’·‘豊臣秀吉의  
수군경시’ 등 네 가지 요인을<sup>54)</sup> 지적한 이후, 有馬成甫와 佐藤和夫 등에 의해  
부분적인 연구가 있었을 뿐이다. 국내에서도 최영희를 위시하여 여기에 관심  
을 보인 서술들이 있었으나<sup>55)</sup>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이 분야의 연구는 조·일 양국에 대한 수군제도와 해상전력 연구가 병행되어  
야 할 것이며, 고대로부터의 통시적 수군제도사·군선 및 船載火力의 변천사·해  
상전투사 전반에 대한 연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본의 수군  
사 연구는 고전·고대의 수군<sup>56)</sup>으로부터 「蒙古襲來의 수군」, 그리고 「전국시대  
의 수군」과 文祿·慶長의役과 수군<sup>57)</sup>까지 단행본 상·하권으로 이루어진 연구  
서가 나와 있다.<sup>58)</sup> 그러나 이 연구서에는 일본수군과 전투사 중심의 서술에 한

성은 당초에 설정된 것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전황의 추이에 따라 동요  
하면서 그때 그때에 따라 전략적 변경을 가져왔다.”고 하였다[中野等, 「朝  
鮮侵略戰爭における海上輸送の展開について」-文綠의役前半期を對象として  
-(『近世近代史論集』, 吉川弘文館, 1990), 29쪽].

53) 이민웅, 『임진왜란 해전사』(청어람미디어, 2004) 66쪽.

54) 德富猪一郎, 『近世日本國民史 朝鮮役』(民友社, 1925 개정판) 上, 662~672 쪽.

55) 최영희, 『임진왜란에 대한 이해의 문제점』, 『한국사론』22, 국사편찬위원회,  
1992.

조성도, 『임진왜란시 조·일 군사력비교』(임란 400주년 학술세미나 발표요지,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92)

이민웅, 『임진왜란 해전사』, 청어람미디어, 2004.

조원래, 『임란초기 해전의 실상과 조선수군의 전력』(『조선시대사학보』제29,  
조선시대사학회), 2004.

정되어, 군선이나 군기 등 수군의 전력에 대하여는 거의 논급된 바가 없었다. 그리고 임진왜란의 조선침략을 표지에서부터 '조선출병'으로 기록한 것이 눈에 띈다. 한국에서도 임진왜란 이전의 수군사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고대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한국해양사를 통관하는 가운데 수군제도사를 정리한 연구들이 있었고,<sup>57)</sup> 조선수군의 기원을 고려말의 왜구출몰기로 보고 그로부터 조선초기의 수군조직과 병선·화기 등에 대하여 고찰한 연구도 있었다.<sup>58)</sup> 그 밖에도 조선전기의 수군사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지만,<sup>59)</sup> 임진왜란 해전사를 연계하는 조선의 수군제도와 해상전력을 투시할 수 있을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하겠다는 것이다.

### 3) 정유재란사에 대한 연구문제

임진왜란은 두 차례에 걸친 일본군의 침략이 7년 동안에 이어진 전쟁이었다. 제1차 임진란은 1592년 4월에서부터 1593년 6월의 제2차 진주성전투에 이르기 까지 대체로 약 1년 2개월간 접전이 계속된 이후 전쟁이 소강상태에 들어갔었다. 제2차 정유란은 1597년 7월 칠천량해전으로부터 1598년 11월 종전시까지 약 1년 4개월간에 걸쳐 전쟁상태가 계속되었다. 물론 1592년과 1597년의 겨울 철 동안은 휴전기간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제1.2차 전쟁의 기간과 규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진란사에 대한 연구에 비하여 정유란사의 연구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미진한 상태이다. 정유재란에 대한 연구에서는 단 한권의 단행본조차 없는 실정이 그 사실을 말해준다. 정유란중의 개별

56) 佐藤和夫, 『海と水軍の日本史』上·下, 原書房, 동경 1995.

57) 해군본부 전사편찬관실, 『한국해양사』, 대한군사원호문화사, 1954.

장학근, 『한국 해양활동사』, 해군사관학교, 1994.

정진술, 『한국해양사』, 경인문화사, 2009.

58) 濱野馬熊, 倭寇と朝鮮の水軍, 中村榮孝 편, 『濱野馬熊遺稿』, 조선인쇄주식 회사, 1936.

59) 이재룡, 조선전기의 수군, 『한국사연구』제5호, 한국사연구회, 1970.

방상현, 『조선초기 수군제도』, 민족문화사, 1991.

적인 전투사례들을 취급한 논문들과<sup>60)</sup> 전라도 향보의병에 대한 연구사례<sup>61)</sup> 등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다. 2012년에 들어와서 사단법인 이충무공유적보존회가『정유재란과 순천 왜교성전투』란 주제하에 학술대회를 가짐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정유재란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 것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여기에서

- 
- 60) 조성도, 「명량해전연구」, 『군사』 제4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2.  
 이희환, 「정유재란시의 남원성전투에 대하여」, 『전북사학』 제7집, 전북대학교 사학회, 1983.  
 민덕식, 「정유재란시 川上久國이 그린 남원성도에 대하여」, 『송갑호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1993.  
 최효식, 「정유재란중 울산혈전」, 『남도영박사 고회기념역사학논총』, 민족문화사, 1993.  
 조원래, 「정유재란과 순천 왜교성전투」, 『아시아문화』 제12호, 한림대 아시아 문화연구소, 1996.  
 오필근, 「정유재란과 사천성전투」, 『경남향토사논총』 7, 경남향토사연구협의회, 1998.  
 한명기, 「정유재란시기 명수군의 참전과 조명연합작전」, 『군사』 제38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99.  
 방상현, 「이충무공의 정유재란 소고」, 『사학연구』 제55·56호 -죽전신재홍박사 정년퇴임기념논문집-, 한국사학회, 1998.  
 이민웅, 「정유재란기 칠천량해전의 배경과 원군함대의 패전경위」, 『한국문화』 29,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02.  
 이상훈, 「정유재란시 사천지역의 전투와 조명군총의 조성」, 『한국중세사연구』, 2006.  
 제장명, 「정유재란기 명량해전의 주요쟁점과 승리요인 재검토」, 『동방학지』 제144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8.  
 61) 조원래, 「정유재란과 석주관 의병항쟁」, 『구례 석주관 7의사』, 목포대 박물관, 1990.  
 \_\_\_\_\_, 「정유재란과 호남의병」, 『전남사학』 제8집, 전남사학회, 1994.  
 양은용, 「정유재란의 석주관전투와 화엄사 의승군」, 『가산학보』 제4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5.  
 하태규, 「정유재란기 전라도지방의 의병활동에 대하여 -전라도 북부지방의 의병활동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제10집, 한일관계사학회, 1999.  
 김동수, 「정유재란기 호남지역 의병의 향토방위전 사례 검토」, 『역사학연구』 제30집, 호남사학회, 2007.

발표된 논문들<sup>62)</sup> 가운데 종전기 조·명·일 삼국의 사료들을 분석함으로써 정유재란 마지막 단계의 전쟁실태를 밝혀내는 데 기여하였다.

정유재란사 연구는 먼저 일본군의 재침목표와 임진란시와 비교되는 전쟁양상에 대해서부터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재침의 목표가 1차 침략시와는 달랐던 만큼 主攻戰線 또한 한강 이남지역에 한정되어 있었고, 특히 조선의 병참기지였던 전라도 공략에 집중되었던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우선, 「왜변록」에 기술된 정유재란의 실상부터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 기록은 종전과 동시에 이정암이 저술한 것인데, 일본의 한반도 침략사를 삼국시대에서부터 임진왜란기까지 관련사료를 중심으로 기술한 내용이다. 다음 글은 그 마지막 부분에 기술된 정유재란에 대한 기록이다.

정유년 7월에 왜적이 아군을 기습 공격하니 수군통제사 원균과 전라우수사 이억기·충청수사 최호 등이 전사하였다. 적이 함양(안의 황석산성)을 넘어서 남원으로 쳐들어오니 명장 楊元이 7천 군사를 인솔하여 막아냈으나 대패하여 겨우 자신의 목숨만을 구했다. 마침내 군사를 나누어 북상하며 전라도와 충청우도의 열읍을 마음대로 노략질하여 모두 초토화시켰다. 이때 아국의 백성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 그 코를 절단당했고, 양남의 사족들 가운데 바다에 피란간 사람들 태반이 적의 포로가 되었으며, 수천리 내에 민가의 연기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병화의 참상이 임진년 보다 더 심하였다. 적이 직산까지 쳐들어가 장차 경성을 펍박하려 하니 도성의 사민들이 모두 피난하여 장안이 빙비었다. 머지않아 명나라 經理 楊鎬가 한성에 이르러 麻貴 등을 파견, 군사를 이끌고 적을 추격하니 적이 퇴각하여 경상도 울산산성과 전라도 순천수영 등지에 주둔하였다. 양경리가 대군을 이끌고 울산의 적을 총공격하여 여러 날을 싸웠

62) 2012년 4월 18일, 승평지방사연구원과 임진왜란사연구회의 주관으로 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이 학술행사에서 발표된 5편의 논문은 다음과 같다.

이 훈, 정유년 전남동부지역에 남긴 이충무공의 발자취」  
송은일, 정유재란과 순천지방의 실정」  
장학근, 왜교·노량해전에 나타난 조·명·일의 機動航海陣形」  
정구복, 한·중·일의 사료로 본 왜교성전투의 주역들」  
조원래, 참전기록을 통해 본 왜교성전투의 실상」

으나 이기지 못하고 대패하여 돌아왔고, 유정과 진린의 군사가 연합하여 순천을 공격하여 여러 날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고 강화를 청하였다. 왜적 또한 집권자 秀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인질을 교환하고 퇴각하니 아군이 추격하다가 통제사 이순신이 총탄에 맞아 전사하였다. 무술년 가을에 적명이 모두 철병하여 돌아갔는데, 명나라 병사와 군마들 중 前後에 사망한 수효가 무려 수만에 이르렀다고 한다.<sup>63)</sup>

정유재란의 전쟁사 전부를 대상으로 한 기록으로서는 매우 짧은 글이지만,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된 사료로 평가된다. 다만 위의 내용에 덧붙여 설명되어야 할 것은, 정유재란은 전라도 남원성을 거쳐 전주를 장악하는 것이 제1차 목표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정유년 2월 21일에 발한 히데요시의 작전명령서(朱印狀)에서 “전라도(赤國)를 남김없이 모두 쳐부수고 충청도(青國) 그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쳐부셔라.”라고 지시한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sup>64)</sup> 따라서 위의 기록에는 빠져있지만, 일본의 재침군은 처음부터 좌·우 양군으로 편성되어 좌군 약 5만명은 宇喜多秀家를 대장으로 하여 해상으로 전진한 후 섬진강 하구에 상륙하여 구례를 거쳐 남원성을 공격하였고, 우군 약 6만여 명은 毛利秀元 지휘하에 거창·함양을 거쳐 전주로 진격하였다. 즉 8월 20일경 일본군은 일부의 해상군을 제외한 전군이 전주에서 작전회의를 가진 후 일부는 경기도를 향해 북상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좌·우로 나누어<sup>65)</sup> 전라도 전역을 장악했던 것이 정유년 8·9월 말의 상황이었다. 정유재란

63) “丁酉七月 倭賊掩擊我軍 統制使元均水使李億祺崔湖等皆敗死 賊踰咸陽至南原天將梁元率兵七千禦之 大敗僅以身免 遂分兵北上 肆搶掠全羅忠淸右道餘郡 盡被焚燒 所獲我國人民生還者 皆割其鼻 兩南士族浮海避亂者 太半被虜 數千里內 無復人烟 兵火之慘 甚於壬辰 賊至稷山將逼京城 城中士女逃散一空 適值楊經理至漢陽未久 遣麻貴等領兵遂擊之 賊退屯慶尙之蔚山山城 全羅之順天水營等地 楊經理率大軍攻蔚山之賊 合圍累日不克 大敗而還 劉紹與陳璘合攻 順天之賊 累日不克 請與講解 倭賊又聞其國王秀吉身死 交質而退 我軍追擊之 統制使李舜臣中丸而死 戊戌秋賊兵盡數撤兵而還 天朝士馬前後死亡 無慮數萬人匹云” (이정암, 『四留齋集』권10, 『왜변록』)

64) 참모본부, 『日本戰史朝鮮役』(文書·補傳 198~201쪽) 문서 제 187호.

65) 『난중잡록』권3, 정유 8월 20일.

초기에 전라도를 이와 같이 철저히 공략한 이유는 임진년 1차전쟁의 실패요인  
이 곧 조선의 병참기지인 전라도를 장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란 점에 있었다.

이렇게 전개된 정유재란의 전쟁사 연구는 먼저 일본군의 재침목표와 초전의  
침략상에 대한 실증작업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는 위의 「왜변록」에  
서 강조된 부분들, 즉 임진란시와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끔찍했던 침략군의  
만행과 잔학한 행동에 대한 것과 명군의 희생이 엄청난 규모에 달했던 배경과  
실상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약자와 부녀자에 이르기  
까지 살륙을 일삼고 코를 절단하여 히데요시에게 바쳤던 일본군의 행동에 대  
하여는 일본측에 구체적인 사료들이 남아 있으므로 연구에 어려움이 없을 것  
이다. 조선측 사료를 통해서도 일본군의 잔학성을 규명할 사료들은 적지 않다.  
『난중잡록』이나 『쇄미록』의 기사들 가운데는 특히 무도했던 일본군의 행동과  
처참했던 민간의 수난상에 대한 기록들이 많다. 『선조실록』 등의 관찬자료에  
서도 관련사료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일본군 포로의 증언에 의하면,  
희데요시가 여러 장수들에게 분부하기를 “조선의 남녀들을 모두 죽이고 밭과  
개도 남기지 않도록 하라.”<sup>66)</sup>고 한 것도 일례가 될 것이다.

정유란시 명군의 피해가 특히 컸던 사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연구가 있어  
야 할 부분이다. 임진란시에 비하여 명군의 파병규모가 더욱 커진 데에 주원인  
이 있었겠지만, 이것은 전쟁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조선의 인력과 물력이 고  
갈된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 임진란시와는 전혀 달리 전국적인 의병활동조차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명군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종전기 순천 왜교성전투에서는 10월 2일 단 하루의 전투에서  
만 명군의 전사자가 8백여명에<sup>67)</sup> 이르렀을 만큼 희생규모가 컸었다. 따라서  
정유란중 조선의 군사력과 명군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연합작전의 실태와 군  
령권 등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하겠다.

또한 칠천량해전에서 조선수군이 완패한 것과 관련, 재침에 대비한 일본군

---

66) 『선조실록』 권93, 30년 10월 기미.

67) 『난중잡록』 권3, 무술 10월 2일.

이 어떻게 해상전력을 보강시켰는가에 대해서도 새로운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칠천량해전이 일어나기 5개월 전에 이미 울산 서생포에 주둔해 있었던 加藤清正이 조선인 부역자들을 동원하여 판옥선의 船制를 이용, 전선을 제작해 바치도록 하였던 사실이 있었다.<sup>68)</sup> 이같은 예로 보면, 일찍부터 재침을 준비하고 있었던 일본군이 조선수군의 선제 뿐만 아니라 함포나 각종 해상장비들 또한 부역자들을 통한 전력증강이 이루진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리고 일본군이 전라도 전역을 점령한 뒤 현지민들에게 ‘免死帖’을 발급하여 주민들을 지배하고 통치했던 사례에 대한 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일부의 연구에서는<sup>69)</sup> 히데요시가 재침에서 기도했던 조선의 영토화 진행의 일면이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하여 小西行長이 순천왜성을 구축하던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을 동원하고 조세를 바치게 했던 사실이나<sup>70)</sup> 순천·낙안 등지의 일본군 영내에 강제 수용되었던 조선인 포로들의 문제에<sup>71)</sup> 대해서도 다각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오희문의 『쇄미록』은 정유란중 전라도 각 지방의 민간 사회상을 소상하게 묘사한 기록들이 풍부하여 이 분야 연구에 중요한 사료가 될 것이다.

끝으로 정유재란의 전쟁사에 있어서는 명군과 조선인들 사이, 또는 일본군 장수와 조선여인 사이에 얹힌 인간애 및 전쟁과 사랑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소재도 다양하다. 유몽인의 『어유야담』에 담긴 갖가지 일화들은 그 대표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전남 해남지방에 널리 알려져 있는 정유재란시의 일본군 장수 菅正陰(菅達長의 아들)과 조선여인 어란 사이에 얹힌 ‘명량해전과 사랑’의 이야기도 연구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젊은 장수 칸 마사가게와 현지의 여인 어란은 연인 사이였지만, 명량해전을 앞둔 상황에서 칸으로부터 작전기밀을 탐지한 어란은 그 사실을 조선진영에 은밀히 알려주었다. 그 후 9

68) 『선조실록』 권86, 30년 3월 갑인.

69) 太田秀春, 『朝鮮の役と日朝城郭史の研究』(일본 清文堂, 2006)의 제5장 倭城の城下'과 附逆'朝鮮人', 203~251쪽.

70) 『난중첩록』 권3, 정유 9월 1일.

71) 『선조실록』 권95, 30년 12월 계유.

월 16일 해전에서 일본군은 패하였고 칸도 전사하였으니, 칸이 전사한 직후 어란 또한 명량 바다에 몸을 던져 칸을 뒷따랐다고 한다. 이것은 일제 강점기 해남에 거주했던 한 일본인의 유고집을 토대로 작성된 관련자료집의<sup>72)</sup> 내용이다. 이순신의 『난중일기』와 명량해전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형상화할 수 있을 연구주제가 아닐까 한다.

#### 4. 맷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임진왜란의 사료인식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일본군의 무모한 침략으로 계속된 7년전쟁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종래에 잘못 인식되어온 몇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다.

임진왜란의 7년전쟁은 조선영토에서 벌어졌고, 온나라가 전쟁을 당하여 싸우며 그 실상을 직접 현지에서 기록한 것도 조선사람들이었다. 그 기록들은, 그와 같이 참혹한 침략전쟁을 다시는 당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염원을 그 땅에 남긴 것이었다. 따라서 임진왜란사를 온전하게 구성할 수 있을 사료들이 조선 측에 집적되어 있을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제는 특히, 지난날 깊은 관심을 갖지 못했던 당대의 문집자료들과 다양한 전쟁일기류, 그리고 『선조실록』 중심의 관찬사료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체계화하는 사료연구부터 이루어져야 하겠다.

임진왜란사에서 가장 먼저 이해되어야 할 것은 전쟁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문제일 것이다. 재론하건대 7년전쟁 과정에서 전국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인 요인들과 관련, 왜 조선측에선 정규군이 아닌 민병이 전투를 주도하였으며, 일본군은 해전에서 왜 조선수군에게 연전연패를 거듭하였는가 하는 것들.

---

72) 박승룡, 『호국여인 어란자료집』, 어란보존현창회, 도서출판 태봉, 2009.

그리고 정유년 일본군의 재침목표는 무엇이었으며 당시의 전쟁양상은 1차 침략시와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등에 대해서이다. 따라서 앞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들 또한 이와 같은 문제들이었다. 개전 초기에 조선측이 일방적인 패퇴 끝에 불과 18일만에 수도 서울을 내놓았던 원인, 이것은 곧 평소에 훈련된 상비군을 양성하여 국방에 대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설명하였다. 과거에 우리가 잘못 인식해온 것 가운데 하나가 곧 관군의 실체였었다. 그런데 이 관군이란 것이 훈련된 정부군이란 뜻이 아니라, 전쟁이 발발한 후에야 관리가 농민들을 모집하여 지휘했던 군사들이었다는 것이다. 즉 비관인 출신의 지식인들이 지휘했던 의병이란 것과 성분상 차이가 전혀 없었던 것이 당시의 관군이었다는 사실이 역사교육에 분명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에 대한 연구과제로서, 16세기에 들어와서 변질된 군역실태와 병행하여 난전에 이루어진 병적관리·군사들의 入番赴防 실태·군사조련 및 병·수영의 실태·전쟁준비의 실상 등이 세밀하게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섬나라 일본의 침략군이 바다를 건너 쳐들어오면서도 사전에 제대로 된 군선과 해상무기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모한 침략전쟁을 일으킨 것도 연구과제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이와 함께 조선정부의 특별한 뒷받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수군의 기본적인 해상전력이 일본군과는 비교될 수 없이 막강했던 배경과 조선수군의 조직실체·판옥선과 핵심화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양국의 해전실상들을 역사교과서에 기술하여 조선왕조가 전통적인 해상강국이었음을 새롭게 인식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정유재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로 인해 당시의 전쟁 피해가 얼마나 참혹하였는가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 정유재침의 전쟁실황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가운데 명량해전의 결과가 정반대로 해석되어 왔을 뿐 아니라 그릇된 역사인식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철저한 보복전쟁으로 펼쳐진 정유재란은 세계전쟁사상 그 유례가 없이 잔학한 침략전쟁이었다. 豊臣秀吉의 명령대로 전라도 전역을 초

트화시킨 일본군은 부녀자와 노약자까지 살륙하였을 뿐만 아니라 닥치는 대로  
귀를 베고 코를 절단하는 만행을 자행하여 전공증서로 남겼다. 현재 일본의 京  
都市 東山區에 조성된 코무덤(耳塚으로 표기)이 바로 그 역사유적이다. 그 증  
서들이 일본측의 사료로 남아 있으므로 연구는 물론 역사교육에 있어서 사료  
학습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논문투고 : 2012. 11. 30, 논문심사완료 : 2012. 12. 13, 게재확정 : 2012. 12. 20

총간 번호	저자(생卒년)	문집명 (간년, 규모)	주요 사료	사료 내용	비고
38	趙穆 (1524~1606)	月川集(1666.6권 3책)	「甲午陳情疏」(권2) 서간류(권3)	1594년 강화문제	1594년 掌樂院正
38	金隆 (1549~1594)	勿巖集(1774. 5권 3책)	「移道內書」「上方伯金辟書」「上體察使柳成龍書」「上城主書」(권2)	경상좌도의 舉義動向·난초 안동지방의 사회동태·명군의 支供에 대한 폐해	
39	朴光前 (1526~1597)	竹川集(1754.9권 4책)	「壬辰擧義檄文」외(권4)	의병활동과 군량조달의 문제	임진년 창의
39	鄭琢 (1526~1605)	藥圃集(1760. 원집 7권 4책, 속집 4권 2책)	「論救李舜臣箚」외 임란관련 차자 10편(권2), 「請堅守平壤啓」「金德齡獄事啓」「李舜臣獄事議」외 10여편의 啓·議(권3), 「梁大撲倡義事蹟」(권4), 「避難行錄」상하(권4.5·임진 4.30~8월말, 임진 9월 1일~계사 1월말), 「龍灣見聞錄」(권6)	난초의 조정동태(世子分朝의 동향 포함) 및 중앙관료의 동향, 김덕령의 육사사건 및 의병관계사(김덕령의 救冤疏 절결함), 난초의 대명관계 및 명군의 작전 동향, 임란초기(임진 5~계사) 서북지방의 군정실태 소상함	임진년 우찬성, 대가호종(7월말 이후 世子侍從). 1595 우의정.
40	具思孟 (1531~1604)	八谷集(1632.4권 3책)	雜稿(1636.李端夏의 跋)의 「亂後弔亡錄」(1594. 정탁과의 공자)	임진란중 행적이 뛰어난 인물들의 활동상	임진년 대가호종 이조참판. 1595 공조판서

41	金富倫 (1531~1598)	雪月堂集(1940.6권3책)	「答金方伯子昂(金眸)」(권3)	임진왜란초 경상도의 방어전략 개진	임진년 鄭兵同倡. 1593 봉화현감
41	黃廷璣 (1532~1607)	芝川集(1632.4권3책)	「答日本書契」 「擬與日本關伯書」 「檄日本國關伯書」 「擬進日本檄書疏 등(권3)	난중 對日關係史(권3의 「上都堂書 포함)」	임진년 號召使로 순화군 陪從7월 회령부 포로. 1593년 하우, 유배.
41	尹斗壽 (1533~1601)	梧陰遺稿(1635.3권3책)	「壬辰年龍灣啓辭」 「時弊箚子」 「論進戰運糧箭子」 「上宋經略書」 「上劉總兵書 등(권3)」	난초 요동피란반대론·군량운송책·난중의 대명관계·정유년 수도권 비어책 및 군량확보책	임진년 대가호종. 난중 우의정·좌의정
42	고경명 (1533~1592)	霽峰集(1617. 6권6책)	「格諸道書 등 (유집)」 「霽峰年譜」 *주자료는 별책 ■正 氣錄■所收	전라도 연합의병의 성군양성	임진년 창의기병 (1592.금산순절)
43	성흔 (1535~1598)	牛溪集(1621. 원집 6권5책, 속집 6권2책)	「時務便宜十五條」-임진년·「行朝上便宜時務」-임진12월(9개조)·「便宜時務劃一啓辭」-갑오5월(1개조)·「自効疏」-갑오6월(권3)·「답학명병부주사원황서」-「선정릉봉심후정대신의」(권6) 임진. 계사 서간(정철 등(권4, 속집 권3) 난중 윤두수. 이해수 등에게 군사관련 간독10여편(권5) 「奉審復命後啓辭」-계사9월(속집 권2) 등	난초부터 1594년까지의 병력동원. 군량조달. 군기·군령유지책. 명군대처 방안 등에 대한 소차 및 간독류 내용이 세밀하고 방대함	1593년 우참찬. 임진왜란중 선조와 광해군에게 전란극복책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備禦策 제시.
43	정인홍 (1536~1623)	來庵集(1911.15권7책)	「辭義將封事」-계사 9월·「辭尙州牧使疏」-갑오 6월(권2)	임진왜란의 원인과 조정의 폐정상 및 난후 의병운동에 대한 조	임진년 창의기병

			치 등	
46	李海壽 (1536~1599)	藥圃遺稿(1727.7권3책)	「亂後悼亡錄」(권3) 「都元帥金命元請推啓」(권6)	전쟁피해와 명군의 동태 난중 대사간·대사성·병조참의
46	정철 (1536~1593)	松江集(1894.원집.속집.별집 11권 7책)	「體察兩湖時疏」「行朝應獻議劄」「赴京時劄(원집 권2)', 「答宰相書」「與宰相書」「與或人書」「與尹汀叟根壽書」등(임진·계사 간독)(속집 권2)	임진·계사년의 전쟁피해상 및 민정난맥상. 임진년말 양호지방의 병력동원 실태. 명나라 조정의 응전태세와 조·명간의 외교 갈등상 등
47	김천일 (1537~1593)	健齋集(1893.원집4권.부록7 권 합 2책)	시문을 제외한 全文	난초의 의병활동상. 임진·계사년간 수도권의 실정. 제2차 진주 성전투 실상 임진년 창의기병(1593.진주성 순절)
47	尹根壽 (1537~1616)	月汀集(1647.원집7권.별집4 권 합6책)	「寄吳遊擊宗道書」「上王主事士騏書」「邢軍門前揭帖」「陳提督前賀帖」-〈倭橋戰 관련〉등(권5.6)	명장들과의 서신에 나타난 명군의 전투의지와 대조선관. 임진년 공조·예조판서·경략첩반사
47	趙宗道 (1537~1597)	大笑軒遺稿(1769.3권1책)	「上金巡察士純誠一」·「창의문」(권 1.잡지). 「趙大笑軒傳」(유성룡.권3 부록)	임진년·정유년 경상우도의 의병 운동사 임진년 김성일과 창의기병
47	이산해 (1539~1609)	鵝溪遺稿(광해년간.6권3책)	「陳弊劄」1.2.3(권5)	조선의 장기인 해전의 중요성과 수군·전선·군량·將士 등 전력강화책을 구체적으로 개진함(원군의 칠천량 폐전 직후?) 임란발발시 영의정·대가호종

48	김성일 (1538~1593)	鶴峰集(1851.원집7권.속집5 권.부록4권 합10책)	「馳啓晉州守城勝捷狀」 「請酬功移 粟募眾事宜狀」-계사 「招諭一道士 民文」-임진 「答柳西厓」-계사 「與 義兵將郭再祐」외(권3.권4). 「倡義 人等開錄狀」 「馳啓道內假差人狀」 「各官義兵將差定帖」-임진 「論大丘 義兵假將崔誠帖」 외(속집 권3)	난초 경상우도의 의병운동사. 임 진년 진주성전투사. 난초 군량공 급의 실태.의병장 差定制 등	임란발발시 초유사.경상좌·우도 순찰사
48	鄭岷壽 (1538~1602)	栢谷集(1710.4권4책)	「請分兵北伐疏」-계사, 「論兵事啓」. 「呈兵部文」 외 명관료들에게 보낸 다수의 정문(권2), 「赴京日錄」-임 진(권3)	난중의 대명관계 및 명군의 작 전동향 등 소상함	임진년 대가호종. 대사간 겸 請 兵陳奏使
49	柳雲龍 (1539~1601)	謙菴集(1803.6권4책)	임진 ~무술년간의 서간15편 외(권 3), 「義兵所陣中條約」-6조(권4 잡 저)	임진왜란초 경상좌도의 사회동 태와 초기의병의 동향	임진년 풍기군수
49	崔崑 (1539~1612)	簡易集(1631.9권9책)	「上顧總督書」-甲午上, 「上禮兵部 書 등 약 70편의 방대한 對明咨·奏 文類(권4.5)	난중 다양한 대명관계 사료	임진년 전주부윤,이조참판. 난중 대명외교문서 전담. 奏請副使로 두 차례 명에 다녀옴
50	金功 (1540~1616)	栢巖集(1772.6권4책)	「司憲府陳時務劄」-을미(권4). 「條 陳慶尙道軍情賊勢狀啓」-임진·계사 10편 장계 (권5) 「與柳相國而見」- 정유, 「초유문」-임진(권6). 권7의 연보	임진왜란초 ~1593년까지 영남지 방의 군정·민정...사회상 관련자 료	임진년 경상도 안집사·1593년 경상우감사
50	金宇顥 (1540~1603)	東岡集(원집17권.부록 4권 합11책)	「赦還待罪疏」-임진11월등 8편의 소(권5), 「憲府七條劄」-갑오6월·「	임진왜란중 국왕이 힘써 실천해 야 할 군사·행정·인사 전반에 대	임진년 병조참판·대사헌

			中興時務箚 -갑오10월(권8). 「陳時務十六條箚」-병신2월. 「請堅守都城箚」-병신11월(권9). 「備邊司獻議」-임진11월. 「中興要務私議」-정유8월(권10). 권17의 부록 연보	한 대책들	
50	朴汝龍 (1541~1611)	松崖集(1850.4권2책)	「연보」(권3) 및 「행장」(권4)	해주의병 5백으로 대가호종	임진년 해주에서 창의기병
51	李德弘 (1541~1596)	艮齋集(1766.8권4책)	「上王世子書」-1592 「上行在疏」(권2) 「與西厓柳相國」-1593	해전의 중요성 개진("備禦之策若於水中則無難 而下陸則其鋒不可當…愚意以爲莫如前期設備 使不得下陸可也). 행재소에 다양한備禦策 상소. 임진년 경상좌도 및 강원도의 군정. 疑兵·山尺 활용법. 해안방어책 등	군략·진법·陣圖 등의 전문가
51	李廷璫 (1541~1600)	四留齋集	「全羅巡察時秘疏」-1594. 「十條箚」-1597(권6). 「答倭將書」·「三節婦傳」·「募義檄文」·「丁酉檄書」·「寄兒輩書」9편-1592~1593(권7). 「行年日記」상하(임진4월~무술, 권8). 「海西結義錄」·「書狀-黃海道招討使時」10편-1592년. 「公車文」5편. 「임진일기」-男濬所錄. 「임진유사」-延安誌소재(권12)	1592년 8월 연안대첩의 경위 외 임진왜란 전기간중 관·의병의 전투상황. 난중 사대부가 부녀자의 수난상. 1594년 전라도의 명군동태 등. * 「行年日記」상하(임진4월~무술 12월) 분석필요	임진년 이조참의. 황해도 초토사로 연안대첩 이름. 전라도, 충청도 관찰사

51	洪可臣 (1541~1615)	晚全集(간년 미상,6권3책)	「賊退後封事」-1593(권3)	1593년 선조의 환도후 국정개혁 12개조항의 개진(군사문제 예외)	임진년 남양에서 창의기병,1593과주목사
51	安敏學 (1542~1601)	楓崖集(1802,2권1책)	「與洪州牧使書 (권2), 「연보 · 행장 (부록)	난후 향촌사회의 갖가지 폐단실태	임진년 兩湖召募使,
52	유성룡 (1542~1607)	西厓集(1894,원집20권,별집4권,연보3권 합 14책)	권3의 주문으로부터 권16의 잡저 까지의 내용 대부분	임진왜란 중의 전반적인 전쟁실황·명과의 관계 및 명군의 동태·선조와 조정의 동향 등 임진왜란사 전반에 걸친 자료	임진년 도체찰사,1593년 영의정
53	李瑀 (1542~1609)	玉山詩稿(1680,1책)	부록 잡저의 「玉山傳」	의병운동사	임진년 괴산군수로 의병활동
53	鄭述 (1543~1620)	寒岡集(1841,원집15권,속집9권,별집3권 합11책)	권3~5까지의 난중 서간, 속집 권7~8의 난중 서간, 별집 권1의 난중 서간 등	난중 지배층의 동향 및 사회상	임진년 통천구수로 창의토적,1594년 이후 승정원 승지로 활약
53	梁大撲 (1543~1592)	青溪集(간년 미상,4권2책)	「창의격문 · 「창의종군기」등(권3), 「양공전」(鄭琢) · 「題倡義格跋」(李植)등(부록)	난초의 전라도 의병활동사	임진년 창의기병
54	李魯 (1544~1598)	松巖集(1852,6권3책)	권2·3의 소·계·격문·서 전부, 「학봉 김선생용사사적」·「대소현조선생용사사실적」·「망우당곽선생용사사실적」(권4)	1592년 경상우도의 의병활동사	임진년 김성일과 창의기병
54	趙憲 (1544~1592)	重峰集(1748,원집13권 부록 7권 합10책)	권8의 疏·啓, 권9의 난중 書 전부, 「起義討倭賊格」의 권13의 전부, 부	임진왜란초 의병운동사 및 호서지방의 사회상	임진년 창의기병, 금산순절

			록 권3·4의 「謚狀」·「신도비명」 및 「碑表」와 「유사」 등		
55	이순신 (1545~1598)	이충무공전서(1795.14권8책)	권2~5의 장계 전부, 권6~8의 일기 전부, 권9~14의 부록 전부	임진왜란 해전사 전반에 걸친 내용. 난중 류성룡을 중심으로 한 조정관료층의 동태	임진년 전라좌수사. 1593년 삼도 수군통제사
55	曹好益 (1545~1609)	芝山集(1883.원집 6권, 부록3권, 합4책)	권2·3의 서간 일부, 부록 권1의 「연보」(임진·계사 연보), 부록 권2의 「행장」-附壬辰事蹟-	퇴계문하 영남사림의 동향, 난중 사대부가의 피란상	임진년 형조정랑. 1594년 성주목사
56	鄭士誠 (1545~1607)	芝軒集(1821.4권2책)	권3의 「壬辰日錄」(임진 4~7월 중 일기)	임진란초 경상좌도(안동 중심) 사대부가의 동태 및 민간사회상	
56	成汝信 (1546~1632)	浮查集(1785.6권3책)	권3의 「代金將軍德齡上體察使李公元翼書」·「代晋陽儒生等爲金將軍伸冤上體察使書」(1595)	김덕령의 의병활동과 난중 진주지방 사림의 동향	■ ■ 양지 ■ 찬
56	朴而章 (1547~1622)	龍潭集(1911.7권3책)	권3의 「斥湖南伯請和疏」(1594), 권5(부록) 「연보」(임진~무술), 권7(부록)의 「행장」	임진란초 김성일 휘하 경상우도의 의병활동상 및 사회동태, 1592년 호남지방의 군량을 경상우도로 추진한 실황	임진년 초유사 김성일의 종사관
56	이원익 (1547~1634)	梧里集(1691.원집6권, 부록5권, 합4책, 1705.속집·별집·부록 합3책)	권2 「辨丁應泰誣奏文」(1598), 부록 권2의 「敎吏曹判書兼平安道都巡察使書」(임진, 4.28), 속집 권1의 「疏箚」(명신·정유년), 권2의 장계 30건 (계사~정유년)	1593년 평안도의 군정·민정실태, 1596~1597년 6월까지 하3도의 군정·민정·명군의 동향 전반, 정유년초 경상·전라도 연해지역의 실상과 조선수군의 피해상	임진년 평안도 도체찰사. 1595년 우의정, 4도도체찰사

57	沈 喜壽 (1548~1622)	一松集(1649.8권5책)	권5의 「請出接待副使」등 7.8건의 箭와 「구연봉사 . 권7의 議	난중 대명관계 및 이여송 등 명군의 동태, 난후의 전란복구책	임진년 대가호종. 동부승지로 이여송영접.도승지.예조판서
57	柳根 (1549~1627)	西壘集(1665.8권3책)	권5의 「丙申冬謝犒軍箋 · 通諭京畿等道大小士庶備禦江都文」, 권6의 「上天將書」, 「京城父老上天將書」등 명장들에게 보낸 서간류, 권8의 「論戰守和三策疏」	난중 경기도 지역의 군정실태, 명군과의 작전협의, 난후의 국방대비책 등	임진년 대가호종.난중 도승지.한성판윤
58	李廷馨 (1549~1607)	知退堂集(1914.15권6책)	「사간원차자」, 「연안승첩비문초」, 「祭金倡義使千鎰崔節度使慶會文」, 「與李相國德馨書」「魏義士傳」(이상 권4), 권14 「연보」(임진~무술)	난초 경기·황도지방의 적정, 이정암 김천일 등의 의병활동, 난중 천민총의 충의사례, 난후의 포상문제 등	임진년 좌승지로 대가호종중 모병활동. 난중 경기감사.대사헌(1593년 이여송수행).이정암의 아우
58	송상현 (1551~1592)	泉谷集(1835.2권1책)	송상현전(신흠 찬) · 「東萊南門碑記」 · 「壬辰遺聞」(권2 부록)	개전초 부산·동래성전황 및 송상현의 충절	임진년 동래부사로 순절
58	곽재우 (1552~1617)	忘憂集(1629.2권1책)	「倡義時自明疏 외 8건의 소장(권1), 부록의 「창의별록 (임진·정유 간)」	난초 영우지방의 의병활동상. 관찰사와 의병장의 대립갈등상	임진년 창의기병
59	閔仁伯 (1552~1626)	苔泉集(1874.6권2책)	권2.3의 「龍蛇追錄 (1592~1598)」, 「용사추록(인물편)」, 「朝天錄」상(1595.4~10월)	난초 해서지방의 실정과 행재소의 동태, 고경명 3부자의 충절 등 난중인물의 활동상. 대명관계 및 명군의 동향 등	임진년 황주목사로 대가호종. 난중 명장의 접반사·聖節使
59	高尙顏	泰村集(1898.6권3책)	권2·3의 김성일·류성룡·이순신 등 정유재란시 黨倭八策을 통한 다	임진년 경상도 용궁에서 창의기	

	(1553~1623)		에게 보낸 서간 8건, 권4의 「호빈 잡기」상, 叢話中 亂中野史 권5의 하 餘談中 김덕령사건, 권6의 부록 「행장」	양한 재침대책- 군량·화기·군마· 전술·왜장 등에 대한 대응책, 난 중의 다양한 秘史 수록	임진왜란사 안식의 문체집과 연구과제 51 병
59	李好閔 (1553~1634)	五峰集(1636.15권8책)	권9~14의 차·계·교서·현의·주문·정문 등 난중의 각종 公車文	난초 지배층의 동향, 대명외교·명군의 동향·명의 군량보급 문제 등, 임진년 각도의 민정실태 및 창의기병의 실상	임진년 대가호종, 上奏, 下諭文書 전달, 정유년 도승지.
61	趙靖 (1555~1636)	黔澗集(1740.4권4책)	권 2 · 3 의 ■ 厥 蛇 日 錄 ■ (1592.4.14 ~ 1593.10월중의 난중일기)	난초 경상좌도의 의병활동사·난중 영남지방의 사회상	임진년 함창에서 창의기병, 난중 의병활동
62	裴龍吉 (1556~1609)	琴易堂集(1855.7권4책)	권2의 疏箚 4건(1594~2597), 권3의 순찰사·명장들에게 보낸 서간, 권4의 「김달원전 「義特說」	전란이 장기화된 상황에서의 지 배층과 기층사회 전반에 걸친 혼란상, 명군과 재지사립들과의 관계, 난중 奇談 등	임진년 김성일 휘하에서 의병활동
62	이항복 (1556~1618)	백사집(1629.월집6권, 별집6권, 부록 합10책)	권2의 전라도 산성관련 叙(7건), 권4의 이순신·천율·유성룡 등의 비명·유사류 권5의 난중 箚子 전부, 별집 권1의 1600년 啓辭 전부, 권3·4·6의 난중의 議·雜記·書류 전부	임진왜란 7년전쟁사 전반에 걸친 중요한 사료원, 난중의 關防, 특히 해전과 수군 및 연해지역의 동태와 사회상이 소상함	임진년 왕자배행·계사년 대가호종·난중 병조판서·우의정
63	金涌 (1557~160020 )	雲川集(1720.5권 부록, 합4책)	권3의 잡지 중 「募兵文」	임진년 안동에 일본군의 내침 직전의 지역사회동태(모병·모량 외에 전죽·철물·皮穀·■如 膠如羽)	김성일의 조카, 임진년 안동에서 아우 澈과 창의

				'등 제반 군수물자 수집실황)	
63	徐渭 (1558~1631)	藥峰遺稿(1927.4권2책)	권2의 「慶尙監司時勸留晋牧郭再祐書 (1595), 부록 권3의 「행장」	1595년 경상도의 적정, 명군의 동태 등	임진년 號召使 종사관으로 의병 활동. 명장 유정의 접반관
63	李厚慶 (1558~1630)	畏齋集(1744.4권3책)	권3의 「寒岡鄭先生言行錄」	임진왜란 중 지방관을 역임했던 정구의 행적과 관련, 각 지방의 전란중 실상소개	곽재우 박성과 친교
63	유몽인 (1559~1623)	어우집(1832.원집6권,후집6권 합6책)	권4의 「教全羅道觀察使韓孝順書」 등	난중 전쟁피해로 인한 호남지방의 참상 및 전후복구책	임진년 세자호위.대가호종.1596년 進慰使 서장관으로 명에 다녀옴
64 ~ 65	李塉 (1560~1635)	蒼石集(간년 미상.원집 18권10책,속집8권4책윗)	권13의 잡저 「書內申和議後, 속집 권2의 「丁酉疏」, 권3의 「義勝軍疏」, 권5의 「格諸道書」	난초 경상좌도의 의병활동 상황·정유란초 경상좌도의 군정실태	임진년 경상도 상주에서 창의기 병
65	李德馨 (1561~1613)	漢陰文稿(1668.12권 6책, 부록4권3책)	권3~9의 임란관련 疏劄·啓辭류, 권10~11 간득중 난중 이항복·명장·왜장 등에게 보낸 서간	임진·정유란중의 조정동태, 대명 관계 및 명군지원책, 군량보급분제, 강화회담 문제 등 7년전쟁 전반에 관련된 다양한 사료원	임진년 대가호종·청원사를 자청, 명에 다녀옴. 난중 우의정 좌의정
65	黃愼 (1562~1617)	秋浦集(1684. 2권2책)	권1의 임진·정유란중의 소차 및 계사류, 권2의 「通信回還後書啓」 (1596) 및 간득·격문·登對說話 등	1595~1598년 중 일본군의 동태, 병신년의 통신사행 문제	난중 적진영에 출입, 적정을 탐지. 1596년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옴
67	崔峴 (1563~1640)	認齋集(1778.원집13권,별집2권 합9책)	권3의 「擬請速遣陳奏使疏 (1598), 권8의 난중 간득 8건, 권9의 「선산	임진왜란초 경상우도의 의병 활동사 및 郭越의 의병활동 사적,	임진년 선산에서盧景任과 창의 기병

			향병약속」·「通開寧義兵文」·「곽의사록」·「善山鄉兵呈左巡察乞軍器書」(잡지의 별집 拾遺)	종전기 명의 친획주사 丁應泰의 謹奏사건(경리 楊鎬 관련) 등	
68	정경세 (1563~1633)	우복집(1657, 원집 20권10책, 별집 12권6책)	권3의 「都督回咨」·箚2건 (1595.1597, 권6의 「乞復讎從軍疏」 와 소3건, 권16의 「謝皇帝降勅勉諭 表」(1597), 별집 권4의 「연보」 (1592~1598))	정유재란시 도성수비책, 정유재 란중의 復讎軍 조직문제, 정유재 란중의 대명관계	임진년 의병장 李逢의 종사관. 정 유년 체찰사 유성룡의 종사관
69 ~ 70	이정구 (1564~1635)	月沙集(1688, 원집 63권 부 록 5권 합20책, 별집 7권2 책)	권21~25까지 戊戌辨誣錄 외 呈文· 奏·咨·啓·揭 전부, 별집 권1의 잡저 「壬辰避兵錄 (임진 4월~계사년)」	「임진피병록」은 임진년 4월말 의 조정동태에 대해 소상한 기 록, 난초 경기도 지방의 적정과 민간사회상에 대한 사료. 「戊戌 辨誣錄」은 대명관계 문건은 종 전기 조·명 양국간의 외교적 갈 등상 기록	임진년 왕세자 배행. 난중 경략 송응창 수행. 1596년 동지사 서장 관으로 명에 다녀옴.
71	정문부 (1565~1624)	農圃集(1708, 2권2책)	권1의 장계 및 牒·格 11건, 권2 부 록의 유사 및 「記壬辰舉義錄 (李 植 찬)」「義旅錄 (朴興宗 찬)」「從義 人別錄」 등	1592년 길주지방을 중심으로 한 함경도의 의병활동상	임진년 함경도 의병장. 난중 영 홍·온성부사·길주목사
71	魯認 (1566~1622)	錦溪集(1823, 8권2책)	권3의 「壬辰赴義」·「丁酉被俘 등 14 개목, 권4의 疏·啓·書 등, 권5의 부록, *별책 ■글 계일기 ■◄ 음	임진년 광주목사 권율과의 의병 활동으로부터 1597년 남원성전 투시 일본군에게 피랍, 3년간 피 로생활 전과정 기록.	임진년 募義使로서 권율麾하에 서 활동. 정유년 남원성전투에서 피로. 3년간 일본에 억류.
72	申欽 (1566~1628)	象村稿(1629, 원집60권, 부록 합20책)	권30의 「論軍民文」「論義兵文」「宋 東萊傳」 등, 권31·32·34·35·37·38·39의	임진왜란중의 군사·외교·사회 전 반에 걸친 주요사료원. 특히 대	임진년 순변사 신립휘하 종 군. 1593년 대가호종. 1594 세자책

			임란관계 소차·계·서·杏奏·志 등. (권38중 「壬辰倭寇構釁始末志 (임란왜경)」·「諸將士難初陷敗志」(초전 폐전상))	명관계 및 명군의 작전·군량 군내부 동향 등이 세밀함.	봉 奏請使 종사관으로 명에 다녀옴.
73	강항 (1567~1618)	睡隱集(1658, 원집4권, 별집·부록합4책)	김천일행장(권4), 「涉亂事迹 「賊中封疏」『賊中聞見錄』(看 羊錄 金 수)	정유재란중 피랍상황과 일본체류중의 실상	임진년 고경명 창의협력. 정유년 모병활동중 일본군에 피랍, 일본에 억류
73	李慶全 (1567~1644)	石樓遺稿(1659, 시집3권 문집1권 합4책)	문집 권1의 「邢軍門西歸耆老軍民等歌謡」·「還都後頌中外哀痛教書」	임진왜란 7년전란을 끝낸 후 명군의 역할과 참전실적에 관한 조선측 시각	영상 이산해 아들. 난중 예조·병조좌랑
73	梁慶遇 (1568~1629)	霽湖集(1647, 원집 11권, 속집2권 합2책)	「告道內募粟文」·「擬上疏草」(권 10), 「祭古戰場文 (속집 권2)	난초 전라도 군량수급책·양대박의 의병활동사	의병장 양대박의 아들. 임진년 부친과 창의기병
74	盧景任 (1569~1620)	散菴集(1784, 7권3책)	「筵中奏對 ·『鄉兵約束文』(권7 보유)	임진년 경상도의 의병활동사·정유재란사	임진년 선산에서 창의기병
74	李時發 (1569~1626)	碧梧遺稿(간년 미상, 8권4책)	권3의 「乞解分戶曹堂上疏」(1597), 권5의 「教兩湖士民募納軍餉書 2건 (1594), 권6의 「仁義陣格」(1592), 권7의 「謾記」 중 임란관련 野史錄	임진년 청주지방을 중심으로 한 충청도의 의병활동상. 난중 충청·전라도 지방의 사회상	임진년 박춘무와 청주에서 모병. 난중 병조정랑·체찰사 이원익의 종사관
80 ~ 81	安邦俊 (1573~1654)	隱峰全書(1864, 원집38권, 부록2권 합20책)	권6의 「임진기사」, 권7 「부산기사」·「노량기사」·「진주서사」, 권8의 「호남의록」·「임정충절사적」·「白沙論壬	개전초기 및 임진·정유란기의 해전사 전반, 제2차 진주성전투 사적, 임진왜란 중 전라도 의병	임진년 박광전을 따라 창의

84	高用厚 (1577~1652)	晴沙集(숙종~영조간, 2권1책)	辰諸將士辨 등) 「祭國蕩文」「祭權司諫春蘭文」(권2)	활동사 남원성전투사. 경상도 안동지방 의 의병활동사	임진왜란사 안식의 문체집과 연구과제 55 고경명의 5남109년 玄氣錄 卷 행
----	--------------------	-------------------	---------------------------------	------------------------------------	--

## 참고문헌

『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亂中雜錄』(趙慶男), 『亂中日記』(李舜臣), 『韓國文集叢刊』(민족문화추진회, 38~84책), 『牛溪集』, 『懲毖錄』, 『鵝溪遺稿』(李山海), 『四留齋集』(李廷蘓), 『月坡集』(柳彭老), 『睡隱集』(姜沆), 『西征日錄』(李廷蘓), 參謀本部, 『日本戰史朝鮮役』(文書), 『高麗日記』(田尻鑑種), 『朝鮮日日記』(慶念), 『西征日記』(天莉), 『朝鮮日記』(是琢).

김재근, 『속한국선박사연구』, 서울대출판부, 1994.

박승룡, 『호국여인 어란자료집』, 어란보존현창회, 도서출판 태봉, 2009.

이민웅, 『임진왜란 해전사』, 청어람미디어, 2004.

육군본부, 근세조선전기편, 『한국군제사』, 1968.

장학근, 『한국 해양활동사』, 해군사관학교, 1994.

정진술, 『한국해양사』, 경인문화사, 2009.

최관·김시덕 편, 『임진왜란관련 일본문현해재』, 도서출판 문, 2010.

해군본부 전사편찬관실, 『한국해양사』, 대한군사원호문화사, 1954.

北島万次, 『朝鮮日日記・高麗日記』, 一秀吉の朝鮮侵略とその歴史的先發一, 株式會社そ  
して, 1982.

\_\_\_\_\_, 『豊臣政權の對外認識と朝鮮侵略』, 校倉書房, 1990.

\_\_\_\_\_, 『豊臣秀吉の朝鮮侵略』, 吉川弘文館, 1995.

徳富猪一郎, 近世日本國民史『豊臣氏時代朝鮮役』上, 民友社, 1925.

有馬成甫, 『朝鮮役水軍史』, 海と空社, 1942.

佐藤和夫, 『海と水軍の日本史』, 原書房, 1995.

太田秀春, 『朝鮮の役と日朝城郭史の研究』, 日本 清文堂出版株式會社, 2006.

이겸주, 『임진왜란전 조선의 국방실태』, 『한국사론』22, 국사편찬위원회, 1992.

이태진, 『임진왜란에 대한 이해의 몇가지 문제』, 『군사』창간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0.

장학근, 『왜군격퇴의 전략전술(해전)』, 『한국사』29, 국사편찬위원회, 1995.

조원래, 『명군의 출병과 임란전국의 추이』, 『한국사론』22, 국사편찬위원회, 1992.

\_\_\_\_\_, 『임란초기 해전의 실상과 조선수군의 전력』, 『조선시대사학보』29, 조선시대사  
학회, 2004.

\_\_\_\_\_, 『명량해전후 일본군의 공세와 연해지역 의병항전』, 『군사』제70호, 국방부 군

사편찬연구소, 2009.

최영희, 「임진왜란에 대한 이해의 문제점」, 『한국사론』22, 국사편찬위원회, 1992.

허선도, 「임진왜란론 -그 올바르고 새로운 인식을 위하여-」, 「천관우선생환력기념 한국  
사학론총」, 정음문화사, 1985.

\_\_\_\_\_, 「제승방략연구 상·하 - 임진왜란 직전의 방위체제의 실상 -」, 『진단학보』36~37,  
진단학회, 1973~1974.

瀬野馬熊, 「倭寇と朝鮮の水軍」, 中村榮孝 편, 『瀬野馬熊遺稿』, 조선인쇄주식회사, 1936.

楊海英, 「万歷壬辰戰爭期間的南兵」(임진란7주갑기념 제1차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정  
치와 외교 ‘동아시아 국제전쟁’」, 임진란, 사단법인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2012.

# Problems in understanding of Imjin-War and related research issues

Jo, Won-rae

The most critical flaw in the current understanding of Imjin-War is the erroneous understanding of historical materials, which is the biggest reason that has hindered the progress of research on Japanese invasion of Korea. The most needed materials in terms of historiography are not dispersed evenly over Korea, Japan and China, as it is commonly speculated, but the primary historical materials found in historical documents of the Chosun Dynasty in Korea. Therefore, based on extensive collection of historical documents and diverse war journals compiled at the time by the Chosun Dynasty and court records in Seonjo-Sillok, there should be comprehensively re-examination of and new researches on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addition, what is most critical for proper understanding of Imjin-War is to accurately ascertain the reality of the 7 year war. Why did militia lead the battle during the early period of war, not the regular forces of the court? Why was Japanese navy defeated battle after battle by the Chosun navy? What was the objective of Jeongyu Reinvasion by Japanese force? How was it different from the first invasion? There must be proper answers to these questions.

In the early phase of the invasion, Japanese captured the capital city of

Seoul only after 18 days after the completely lopsided victories over Chosun forces in a series of battles. The primary reason was absence of regular standing army of Chosun. They did have what was called "government force", but it was not an army of trained soldiers. They were just soldiers comprised mostly of farmers conscripted by government official at the outbreak of war. They were not very different in terms of quality and composition from the army of militia led by Seonbi, Chosun scholars during the war. The Chosun Dynasty of the 16th century did not have the standing army of trained soldiers, which rendered them helpless during the early phase of Japanese invasion and therefore the privately organized militia led the war.

Another issue that should be critically re-examined in the study of Japanese invasion of Korea is that Japanese invaders had started a reckless war without being properly equipped with battle ships and weapons of naval warfare despite the fact that they were crossing the strait to invade Chosun. In addition, there should be more systematic research on how Chosun navy came to have such a powerful traditional naval power incomparable to that of Japan, the reality of Chosun's navy organization and Panoksun battle ship with firepower. In addition, the stories of naval battles between both countries must be recorded in history textbooks so that students can learn that the Chosun Dynasty was a traditional naval power in East Asia.

Because there has been almost no study on Jeongyu Reinvansion, proper understanding of how brutal the effect of war was at the time was not achieved. Joengyu Reinvansion was retaliation against Imjin Invasion that occurred prior. It devastated the entire region of Jeolado province, the fertile agricultural ground. However, due to lack of researches on the reality of the reinvasion, it has been understood only in terms of the Great Naval Battle of Myeongrang, which occurred at the very end of the war. There has been little

awareness of how brutal the outcome of the reinvasion was as a result of thorough retaliation. There should be more thorough studies on how Jeongyu Reinvasion was an invasion with utter cruelty and brutality unprecedented in history of wars in the world, and that Japanese invaders committed indiscriminate slaughter of ordinary people-old or young, man or woman-according to the order of Hideyoshi, cutting off nose and ears from the dead and from even living people without discrimination.

keywords : recognizing historical materials, Hideyoshi's war of invasion, nose-cutting, Chosun's document collection, *Seonjo-Sillok*(宣祖實錄), guarantee of life(免死帖), absence of naval power of Japanese invaders